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4624.79	↑ 코스닥	949.81
	(+38.47)		(+1.89)
↑ 금리 (국고채 3년)	2.970	↑ 환율 (원·달러)	1468.50
	(+0.028)		(+10.90)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4대은행
포용금융 확대
저신용자 ‘금리 인하’
03



美서 자율주행·로봇 힘주는 현대차… 글로벌 리더십 공고화

조지아주에 ‘RMAC’ 연내 구축
HMGMA에 로봇 아틀라스 도입
연내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상용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과 전기 차,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격전지인 미국에서 기술 고도화에 나서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로보틱스·자율주행·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해 미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연내 미국에 로봇 데이터 수집 및 최적화를 위한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 신설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미 조지아주 사바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인근에 들어선다. 자동화·AI·로보틱스를 기반으로 제조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는 HMGMA가 첨단 스마트팩토리인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우선 현대차그룹은 CES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대차그룹의 모셔널 로보택시를 시승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아틀라스’를 미국 현지서 생산해 HMGMA에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을 HMGMA에 투입하고 공장 내 위험구역 점검, 데이터 수집 등 생산 공정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뿐 아니라 SDV 핵심 기능인 자율주행 사업도 미 합작법인 모셔널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모셔널은 연내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에서 미래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환경도 꼽힌다. 엔비디아, 퀄컴, 구글 등 주요 협력 관계인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도 미국에 위치해 있어 기술 협업과 의

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도 있지만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와 강성 노조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율주행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 도입과 절차를 간소화해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기술 확보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술 수용성, 빅테크 집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국내는 안전요원 탑승과 비상시 수동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레벨3 자율차는 고속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운행 가

능하고 사고시 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와의 갈등 문제도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논의에서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AI 위원회’ 구성을 사측에 요구한 바 있다. 또 주 4일제를 요구하는 등 노사간 갈등도 부담이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올해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의 포티투닷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R&D 센터를 개소하는 글로벌 거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마운틴뷰는 실리콘밸리 중심 지역으로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본산지다.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와 오토라이노베이션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 기업들도 많아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은 물론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시범 운영하는데 최적화됐다”며 “기술 고도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2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뉴시스

“개인정보 유출 쿠팡 영업중지 처분 가능”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

주경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여준의 겸손은힘들다’에 출연해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피해구제 이행 여부가 제재 수위 판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쿠팡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조사도 다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와우멤버스십 할인과 관련한 기만 광고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빠른 배송이 가능한 와우멤버스십 회원에게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할인 가격에 대한 기만 광고 행위도 있다”며 “할인 가격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인데 계속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회원 탈퇴 과정이 너무 복잡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회원들은 탈퇴를 못 하거나 탈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 의장과 김 의장 일가가 경영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 참여할 경우에는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반도체 ‘슈퍼사이클’ 코스피 4600 돌파… 빗투 역대최대

KRX, 코스피 지수 7연속 사상최대
동학개미, 올해 누적 1조 매수세
증권가, 코스피 예상치 일제 상향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기대로 코스피가 4600선(종가 기준)을 뚫었다. 뒤쳐지면 안 된다는 ‘포도’(FOMO) 심리가 커지며 이른바 ‘빗투’(빗내서 투자) 규모도 최대로 불어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4% 오른 4624.79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코스피 5000선까지는 어느새 약 8.11%만 남았다.

기관과 동학개미가 각각 2000억원, 800억원여치를 사들이며(순매수)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개미들의 올해 누적 매수액은 1조원원대로 불어났다. 개인들의 매수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올해 누적 순매수액은 각각 3조9600억원, 4500억원 규모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4586.32)보다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에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이날도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장 중 ‘14만 전자’를 찍었다. SK하이닉스도 ‘76만 닉스’를 달성했다. 종가는 각각 13만 8800원, 74만 9000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들 반도체주의 추가 상승을 전망한다. 장밋빛 실적전망 때문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올해 1분기 22조 8178억원, 2분기 26조 3923억원 등이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값은 106조 7034억원이다. SK하이닉스 역시 고

대역폭메모리(HBM3E) 공급 확대에 힘입어 올해 HBM 시장 점유율 50% 안팎을 유지하며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밸리는 자동차차주로도 확산했다. 현대차는 0.27% 오르며 36만 7000원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26’에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비공개로 회동했다는 소

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

AI발 기대감에 두산에너지빌리티는 4.63% 상승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예상치를 올려 잡기 시작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1분기 중 코스피가 5000대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4600에서 5650으로 상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의 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 유안타증권도 기존 3800~4600의 전망치를 4200~5200으로 높였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맹렬하게 달리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28조 349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금액으로, ‘빗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 ▲박지원 “국힘, 이대로면 몰락…구원투수는 간동훈 아닌 홍준표” /사진 뉴시스
- ▲조국 “이준석,故노회찬 발언 왜곡 말아야”…국힘과 손잡는 연대 거부
- ▲김병기, 당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자진 탈당 의사 질문엔 침묵
- ▲검찰개혁추진단, “검찰총장 헌법에 규정…명칭 그대로 유지”
- ▲국힘 “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질…‘경제체질’ 개선만이 살길”
- ▲국힘 송언석, “2차 특검에 국민 피로”…민주당 한병도, “내란 청산해야”

누구나 ‘AI 딥페이크’ 범죄 대상 피해자 보호 중심 제도보완 시급

생성형 AI, 보편화·고도화 추세
성적 콘텐츠 제작 등 악용사례 증가
법적 안전장치 사업자·이용자 집중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이미지 편집·합성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일상적인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와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최근 ‘누디피케이션(nudification)’이나 ‘디클로싱(De-Clotting)’으로 불리는 앱과 도구들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툴은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의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합성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이다.

제작 문턱도 낮다. 다량의 나체 이미지를 AI에 학습시킨 뒤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해 각도와 방향에 맞춰 합성하는 구조로, 일정 수준의 코딩 지식만 있으면 구현이 가능하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는 깃허브(GitHub)에 공개된 오픈소스나 생성형 AI 도구를 참고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봇 수백 개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고도화된 툴은 유료로 거래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생성형 AI ‘그록(Grok)’ 논란이다. 그록은 본래 누디피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최근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들이 단순한 명령어만으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그록의 윤리 설계와 안전장치 부족을 지목한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니가 비교적 엄격한 콘텐츠 필터링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그록은 ‘덜 검열하는 AI’를 표방하며 성적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시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엑스(X)는 이미지 생성 기능 제한과 유료화 전환에 나섰지만,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규제 당국은 이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접속 차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며, EU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관련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도 오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생성 결과물에 워터마크 등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의무는 AI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결과물을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투명성 확보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표시 훼손에 대비한 탐지 도구 제공을 규정하고, 중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AI 기본법만으로는 딥페이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

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따르면 정준화 국회의원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법 체계가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생성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타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구조임에도, 법적 안전장치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투명성 확보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호 대상의 범위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법은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위험을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딥페이크 피해는 사기·기만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계층이 서비스 이용자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AI 생성물 탐지를 우회하는 기술적 편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의 제도 정비와 병행하여,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Safety by Design)’이 업계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 상업적 자유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언제나 기술의 악용 속도를 뒤쫓는 데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 136억달러 ‘신기록’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와 ‘K-매운맛’ 열풍 확산으로 라면·소스·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을 주도로 역대 최고인 136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획예산처, 과기부 상설 협의체 신설

예산 편성 시 사전협의·협력 강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일관성을 높일 목적으로 상설 협의체를 신설한다. 또 예산 편성 시 사전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R&D 예산은 35조5000억 원이다. 이 중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 30조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그간의 운영 방식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 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양 부처는 협력,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상설 협의체에서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그간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화, 미국향 조선 전략 속도… ‘설비·인증’ 변수

美 현지 도크 부족 등 물리적 제약
종합 자격체계 아직 완비하지 못해

한화그룹이 무인군함까지 영역을 넓히며 미국향 조선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 필라델피아조선소의 현실은 도크 부족과 인증 미완이라는 구조적 병목에 직면해 있다. 상선 수주만으로도 건조 여력이 빠듯한 가운데 해박AI 협력을 통한 무인함정 개발 구상이 더해지며 추가 설비 확보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USA는 필라델피아조선소 도크 2기만으로는 향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류 도크 확보·타 조선소 도크 활용(분산 건조) 등을 검토 중이다.

한화는 지난 2024년 필라델피아조선소 인수(약 1억 달러)에 이어 추가 50억 달러 투자로 연간 건조능력을 최대 20척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증설이 완료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필라델피아조선소는 대형 상선과 미 해사청(MARAD) 관련 정부 선박 등 약 19척의 수주잔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도크 체계 기준 연간 건조능력은 상선 1~2척 수준에 그친다. 업계는 적정 수주잔량을 3~



한화오션이 지난해 8월 미 해군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사업을 처음 수주해 6개월간 정비를 마친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가 출항하는 모습.

/한화오션

4년치로 보는 만큼 대규모 증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외부 협력이나 추가 설비 확보 없이는 병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최근 한화는 미국 자율선박 스타트업 해박AI와 중형 무인수상정(ASV) 협업을 추진 중이다. 미 해양전문매체 더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지난 8일 양사가 약 200피트급 자율수상함 공동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산 거점으로 필라델피아조선소가 거론된다고 전했다.

또 한화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참여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향후 군함·잠수함 신규 물량 확대 여지가 거론된다. 인력도 확충에 나선 것으

로 보인다. 한화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 현지 인력을 한국 조선소로 초청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한·미 순환 교육’ 구상을 필라델피아에서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필라델피아조선소는 도크 부족 외에도 미 해군 전투함을 직접 건조하기 위한 종합 자격 체계를 아직 완비하지 못한 상태다. 미 해군 함정 건조에는 시설보안인가(FCL), 미 해군 해상시스템사령부(NAVSEA) 및 함정건조감독단(SUPSHIP) 감독 체계 편입, 군사규격 품질 인증 등 복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특히 FCL은 미 국방방첩보안국(DCSA) 심사를 거치며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상선 위주로 설계된 도크 체계에서 군함·잠수함 생산을 병행할 경우 보안 통제 등 추가적인 공정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추가 도크 확보나 타 조선소 활용 없이 미 해군 군함·무인함정·잠수함 사업까지 동시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제약이 분명하다”며 “한화의 미국 조선 전략은 미 정부 발주 정책에 맞춰 단계적으로 설비와 생산 거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서울 경제 데이터, 한눈에 확인하세요”

서울시 ‘경제관’ 구축·서비스
지도·그래프 중심 시각화 초점

창업을 계획하기 전에 원하는 지역의 사업체 분포와 밀집 업종, 지역 거주자의 평균소득과 소비 규모, 지난 10여 년간 어떤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했는지 등을 ‘한 곳에서 한눈에’ 시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서울데이터허브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경제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서울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관’을 구축, 13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경제관은 서울데이터허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경기 흐름, 산업 구조 변화, 창업 환경 등 기존에 통계 보고서나 전문 자료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던 경제 지표 및

정보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를 중심으로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관’은 ▲경제구조·성장 ▲경기지수 ▲산업 ▲창업·자영업 ▲고용·소득 ▲물가 ▲소비 ▲가계금융 ▲부동산, 총 9개 분야 핵심 경제 지표를 다루며 40개 화면을 통해 서울의 경제 흐름을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수, 창업률, 부동산 거래량 등 주요 지표를 지도 기반 시각화, 시계열 그래프, 전년 대비 증감 비교 기능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특정 지역이나 시점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26개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공, 자치구 평균이 아닌 실제 생활권 수준 경제 여건도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현진 기자 lhj@

4대은행 포용금융 확대… 저신용자 금리인하, 전체는 ‘글썸’

신용대출 금리 하락 금융채 영향
포용금융 확대 취약층 선별 인하
4대금융 5년간 70조 지원 약속
기준금리 동결 조달비용 부담 지속
고신용자 금리 상승격차 축소 전망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면서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확대는 특정 계층 또는 상품 범위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고소득·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포용금융 확산으로 향후 취약차

주와 금융소외층의 고금리는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은행의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 금리는 연3.81~5.21%로 집계됐다. 11월 말 신용대출 금리가 연3.83~5.31%인 것과 비교하면 하단기준 0.02%포인트(p), 상단기준 0.10%p 낮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 대출 전체 평균 금리는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 집값 상승 지속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어 대출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포용금융에 저신용자 금리 ‘뚝’

신용대출 금리가 소폭이나마 하락한 이유는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금융채 6개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채(은행채 AAA) 금리를 보면

11월 말 2.878%였던 금리는 지난8일 기준 2.726%로 0.152%p 낮아졌다.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금리를 낮춘 요인도 컸다. 앞서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은 취약계층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총 70조원 투입키로 약속했다.

신한은행 제주은행은 거래고객 중 두자리수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고객대출을 1년간 한 자리수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 대상은 금융소외계층(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으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우리금융은 ‘긴급 생활비 대출’을 연 7% 이하의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고금리 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컸던 취약차주와 금융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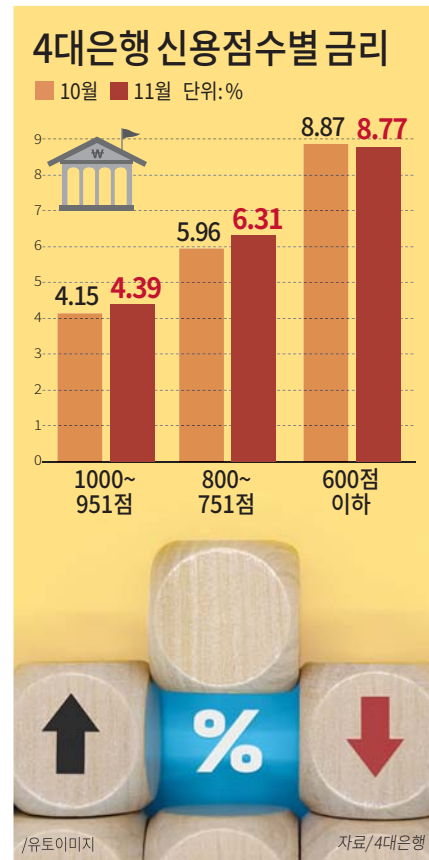
◆ 저신용자 내리고, 고신용자 오르고

다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고소득·고신용자 대상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중 4대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금리는 고신용자(951~1000점) 기준 연 4.38%로 한달 전(연 4.15%)와 비교해 0.23%p 상승하고, 중신용자(751~800점)는 같은 0.35%p 올랐다. 반면 600점 이하 저신용자는 한달간 연8.87%에서 연8.77%로 0.10%p 하락했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포용금융의 확대로 600점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낮출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낮아지면서(금리차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과잉공급 ‘죄수의 딜레마’… 주력산업, 민간 자율로는 한계”

산업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보고서
석유화학·철강·배터리 과잉공급 장기화
“눈치보기로 감축 못해 자율조정 한계”
정부 주도 사업재편·신산업정책 제언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구조조정 중심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형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기업 간 눈치보기로 누구도 먼저 나서기 어려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

조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석유화학·철강·배터리 산업이 생산능력은 지속 확대된 반면 가동률은 급락하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이미 예견됐지만, 기업들은 “경기 회복 시 수요가 늘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 설비 감축 대신 버티기 전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선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다.

산업연은 기존 정부 대책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안을 가져오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하면서, 과잉공급 국면을 타개하는 데 실효성이 제

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도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등 경쟁 민감 정보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를 부담한 공동행위(담합)로 해석할 소지가 크다. 여기에 경쟁제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장 획정 범위가 ‘내수’인지 ‘글로벌’인지 불명확해, 기업 입장에서 위법성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내수·가격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경제안보’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시장 확정과 경쟁제한성 심사

에서 단순한 가격 효과뿐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기간산업으로서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요소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급망 유지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우선 정부 주도성 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사후 승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조정 필요 산업과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참여를 권고하는 ‘능동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나열식 지원을 산업·기업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제도와

연계해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산업·지역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신속 지원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공동행위 특례의 상시화, 관계부처 간 원스톱 공동심사 체계 구축, 경쟁제한성 판단 가이드라인의 명문화 및 사전 심사제 활성화를 통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정부 주도성을 강화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신속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성능보다 ‘범정부 G2G 패키지’ 경쟁”

한-캐 방산협력 범정부 토론회
절충교역 넘어 범정부 통합모델 필요
에너지·자원·인프라 연계협력 확대

캐나다잠수함 사업(CPSP) 수주 성패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G2G(정부 대 정부) 협력 패키지 제시 여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산업·경제적 기여를 충족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에서는 CPSP 대응 전략으로 절충교역 활성화와 정부 주도의 통합 협력 모델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쟁국 독일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에너지·자원 연계협력 패키지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기준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에 불과한 반면,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고용 창출·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기여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로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이번 사업의 승부처는 성능이 아니라 캐나다의 ‘Buy Canadian(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전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잠수함 제안에 에너지·핵심광물·배터리 산업을 연계한 G2G 패키지를 결합해 캐나다 산업정책과의 적합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도 이에 맞춰 에너지·핵심광물·우주 협력을 묶은 범정부 G2G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면, 캐나다 석유·천연가스의 단순 구매를 넘어 액화천연가스(LNG)·LPG 운송선 발주와 LNG 터미널 지분 투자 등 인프라 연계형 협력으로 확장하고 청정기술·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니켈·리튬·코발트·희토류 등 핵심광물 개발 참여와 제련·단조·주조 공장을 포함한 공급망 공동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캐나다 텔레스트 라이트스피드 제재도 위성통신 협력과 캐나다 노바스코샤 우주발사장 활

용 등 우주 분야 협력도 포함해, 북극·우주까지 확장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크지 않다”며 “결국 국가 차원의 장기적 파트너십 설계 역량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근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행 절충교역 대응 체계만으로는 CPSP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안보실 주관 컨트롤타워(TF) 구성, 부처 간 협업 강화, 전문 지원기관 기능 보강을 주문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 사업은 기업 단독 경쟁이 아니라 정부·국회·산업계가 외교·안보·산업·금융·기술을 묶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범정부 지원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현대차그룹 모셔널, 연내 美에 ‘무인 로봇택시’ 상용화 목표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 시범운영 연말엔 SAE 레벨 4 서비스 제공 방침
실질적 ‘수익모델’ 창출단계 진입
중장기 자율주행 기술로드맵 공개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올해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봇택시’ 상용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며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석권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고도화 전략도 공개했다.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모셔널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테크니컬 센터에서 로봇택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모셔널은 올해 초 시범 운영을 거쳐 연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현대차그룹이 모셔널의



모셔널 로봇택시가 라스베이거스 시내를 주행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내놓은 첫 번째 대규모 사업 확정안으로, 단순한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 모델’ 창출 단계에 진입했음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모셔널이 상용화의 첫 무대로 라스베이거스를 낙점한 것은 독특하고 복잡한

교통 환경과 엄격한 승차차 규정 등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입증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모셔널은 2018년부터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용화 준비를 단계적으

로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사장 겸 CEO는 “상용화는 고객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의 준비 상태를 입증하는 단계”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운영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셔널은 기술의 진보와 동시에 안전을 우선(Safety First)하는 자율주행 개발 철학도 강조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제정한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고, TÜV SÜD 등 독립 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차량과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해 왔다고 밝혔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CEO는 “자율주행은 사람의 실수 없이 주행하는 차량이라는 근본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기술”이라며 “모셔널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기술 개발 원칙을 강조했다.

또 모셔널은 중장기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도 공개했다. 모셔널은 기존 모듈형 자율주행 아키텍처를 발전시켜, 머신러닝 기반 엔드투엔드(E2E) 모션 플래닝 중심의 통합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행 데이터와 학습 모델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대 주행 모델(LDM)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범 운영에 투입될 아이오닉 5 로봇택시에는 기존 구조와 E2E 기술이 병행 적용돼 있으며, 주행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자율주행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그룹 차원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가속화를 위해 AVP 본부와 포티투닷, 모셔널 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스베이거스 로봇택시 상용화 과정에서 축적한 레벨 4 운영 경험과 안전 검증 체계를 SDV 고도화 전략과 연계해 그룹 전반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책자금 브로커 뿌리 뽑는다… 한계기업 지원도 강화

중기부 소관 기관 업무보고

중진공 등 정책자금 부당개입 TF 꾸려
정책자금 신청·확인 쉽게 만들어야

중진공, 한은 등과 한계기업 기준 맞춰
소진공,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갈수록 활개치고 있는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을 위해 올해 전방위로 나선다. 특히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노동성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여기에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참여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도전도 더욱 적극 지원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기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기부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

다. 6년간 관련 신고가 29건에 그치는 등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신고해도 실익이 없었다”면서 “중진공 지역 본·지부에 신고담당을 지정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19명으로 구성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전담반’을 자체적으로 꾸리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액 포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소진공 역시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3자 부당개입 근절 TF’를 지난달 말부터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익명 제보센터를 신설했고 체계적인 신고 대응 매뉴얼도 구축했다.

신보중앙회도 지난달 말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있는 17개 지역신보와 공동 대응해 불법브로커를 근절해나갈 방침이

다. 기보도 ▲브로커 신고제도 활성화 ▲신고포상제도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창업진흥원 역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당개입 이전의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제2차관은 “최근 브로커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면서 “브로커가 생기는 이유는 생업에 바쁜 분들이 서류를 작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려면 서류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신청·집행)도 최대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과 재도전 환경도 강화한다.

중진공의 경우 ‘한계기업’ 기준을 한 국은행과 국내 연구기관 기준에 맞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으로 일원화했다.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있을 때 폐업시까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재취업 지원 그리고 재창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에 더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생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생계비도 추가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경영컨설팅부터 채무조정, 폐업, 재가까지 원스톱 지원하기 위해 ‘통합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책 실행이 지연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들에는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성과 중심의 정책 집행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정책 홍보와 전달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가 정책 전환의 준비 단계였다면 올해는 이를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며 “현장 변화와 고객 체감을 기준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는 적극 개선해 정책 성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소매 유통업계, 고물가·고환율에 계절 비수기까지 ‘접악재’

대한상의 ‘1분기 소매유통업 RBSI’ 백화점, 기준치 유일 상회한 112 기록
대형마트, 가장 낮은 수준 전망치 64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계는 고물가·고환율 부담에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전반적인 업황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망치는 79로 집계됐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은 그 반대를 뜻한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기조로 소비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고환율로 인한 매입원가 상승과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가 기업의 마진 구조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늘고, 연말 성수기 종료 이후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경영 심리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RBSI 112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상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먹고(K-푸드), 바르고(K-뷰티), 입고(K-패션)’으로 대표되는 K-소비 열풍에 원화 약세가 더해지며 해

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잡은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경기 불황에도 비교적 견조한 명품 소비와 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 판매 호조가 맞물리며 성장 기대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쇼핑은 82로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오프라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됐다. 고물가 여파로 합리적 소비 성향이 강화되면서 가격 비교가 쉽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온라인 채널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신선식품 새벽배송과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도 소비자 유입을 견인하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는 64로 가장 낮은 수준의 전망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에 따른 장바구니 지출 감소와 함께 온라인 채널과의 신선식품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인 가구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더해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까지 겹치며 경영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편의점 역시 65로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동절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인건비 상승 부담이 더해진 영향이다. 근거리 점포 간 출점 경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한계점포의 폐점이 늘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슈퍼마켓은 67로 집계됐다. 대형마트의 소량 구매 전략 강화와 편의점의 취

급 품목 확대 등 근거리 유통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며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데다, 에너지 요금 등 운영 고정비 상승이 수익성 개선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내수 시장 정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 개척이 유통업계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전 유통학회장은)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이 한류 열풍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류 연계 마케팅,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 등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유통산업이 제조와 콘텐츠를 잇는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법사위 안건조정위,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 의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
국민의힘 “일방적 특검 법안”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특검법안을 논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안에서 이견이 큰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로 구성되는 기구로, 6명의 조정위원이 가장 90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 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안조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광규택·주진우 위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범여권이 4명이거나 민주당 뜻대로 안조위의 의결 사안을 결정할 수 있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안조위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며 “통일교 특검은 원내대표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추진)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한 데

모아 수사하는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1곳에서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고,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과견검사 15명·과견 공무원 130명이다.

김 간사는 통일교 특검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의혹

에 관해)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돼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날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오늘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광규택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 중 취재진과 만나 “2차 종합 특검은 수사 대상도 원래 안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서 안건 조정하자고 해 저희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6개월을 연장해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물리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해서 이것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견 검사가 기존 안보다 줄어든 것에 반해 수사관은 늘

어나 총 수사규모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리나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를 다 빼버리고 말 잘 듣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특별 수사관도 2배로 늘렸는데, 전문 직업인이 아니고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보다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에 대한 제2차 특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다.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니까 우르르 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기 때문에 수사관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한 검사들은 줄인 것”이라며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간판 바꾸는 국민의힘 “당 쇄신 차원”

책임당원 설문서 응답자 68% 찬성
내달 중 당명 변경 마무리 목표

국민의힘이 12일 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끝에 2월 중 당명 변경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장동혁 당 대표의 쇄신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당명 변경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여게인 세력과 절연 없는 당명 변경이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전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후대전

화 ARS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3000명,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동시에 진행한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8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그동안 당명 개정은 별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거나 일부 당직자에 한정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엔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뒀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서지영 당 홍보본부장 중심의 전국민 참여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 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보수정당은 2012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 14년 간 5차례 간판을 바꿔달게 됐다.

한국 현대사에서 주요 정당은 당명 개정을 수단 당내 위기와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박태홍 기자

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달 처리”

2026년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1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산업안전 예산 방향과 주요 증액·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정책 의지를 공유하고, 2026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예산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1조5758억원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이

는 전년 대비 27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해선 3배 증가했다.

민주당은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빈발’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신청 근거 신설,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내에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특히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예산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예산이 현장에 잘 적용돼서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위 차원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예방 정책은 규제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잘 연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며 “많은 분의 걱정 중 하나가 채찍만 너무 아프게 휘두르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선 ‘당근’이 맛있게 잘 작동해서 실제로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그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인사하며 합장하고 있다. /뉴시스

李 대통령 “국민 통합, 큰 역할 부탁”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많다”며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잘 새겨두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

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했으며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성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등이 자리했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고,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 했다.

종교인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진우스님(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은 “이번 자리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 안보”라며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외국인은 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
“한국은 주말이라... 해외 송금은 당연히 안 되겠지?”
“은행 상담 때마다 한국어가 안 통해서 답답해”

| 방송인 수잔 샤키야 |

15년 간 한국 생활에 완벽 적응한 수잔 샤키야님은
오늘도 하나은행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HANA THE EASY 하나더이지

외국인의 한국생활 필수 파트너

외국인 손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 외국인 전용 맞춤 금융 / 간편 금융 / 다국어 금융 상담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보험상품 단순화… 고객 ‘선택 피로’ 낮춘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보장별 분산 통합, 가입유형 세분화

동양생명(무)우리WON하는암보험
총 33종→9개로 ‘특약 다이어트’

새해 보험사들이 내놓은 첫 상품의 공통 키워드는 보장 확대보다 통합·단순화다. 암·치매 같은 중대 질환을 한 상품으로 묶고, 특약 선택지를 줄이면서 청약 절차까지 간소화해 고객의 ‘선택 피로’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동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암(뇌·심 포함) 진단부터 최신치료까지 주요 보장을 한 상품에 담은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을 새해 첫 상품으로 선보였다. 보장 영역별로 분산된 기존 건강보험 라인업을 하나로 통합해 여

러 개의 상품을 가입하지 않아도, 한번의 설계로 종합 보장을 받도록 한 구조가 핵심이다.

통합 설계는 ‘가입 단계’에서도 드러난다. 한화생명은 고지유형을 13단계로 세분화하고, 무입원·무수술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유리한 고지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최대 11회까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환을 통해 최초 보험료 대비 약 50% 수준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치료 국면에서의 ‘현금흐름’도 기능으로 붙였다. 암이나 특정 순환계 질환 치료(수술)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입금액의 70%를 미리 지급하는 ‘치료비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희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보장별로 분산돼 있던 보험을 하나로 통합하고, 가입유형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도 ‘(무)우리WON하는암보험’을 선보여 ‘특약 구조 다이어트’를 전면에 세웠다. 수술·통원·주요치료·특정치료 관련 총 33종 특약을 9개 특약으로 재구성해 유사 담보끼리 그룹화했다.

기존에는 암통원, 상급종합병원 암통원 등 특약을 각각 고르는 방식이었다면, 유사 담보를 하나의 특약으로 묶어 한 번에 통합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상품이 어렵다’는 고객 체감 문제를 특약 설계 단계에서부터 줄이겠다는 의도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특약 구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객들이 쉽고 간편하게 필수 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손보 영역에서도 흐름은 유사하다.

KB손해보험은 ‘KB 금쪽같은 펫보험’ 개정판을 출시해 ‘보장은 넓히고, 가입은 쉽게’를 내걸었다. 기존 입·통원 의료비 통합 한도 방식에서 벗어나 입원과 통원을 각각 연 2000만원씩, 총 40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구조 측면에서는 ‘쪼개진 보장’을 다시 묶었다. KB손해보험은 기존 강아지 7개, 고양이 3개 보장으로 나뉘어 있던 MRI·CT, 특정처치(이물 제거), 특정약물치료 등을 ‘반려동물 의료비 확장 보장Ⅱ(주요치료비)’로 통합했다. 최근 건강보험에서 주요치료비 보장에 대한 고객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펫보험 상품에도 반영했다.

김재구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고액 의료비와 장기 치료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현대카드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 /현대카드

현대카드-GS칼텍스 ‘에너지플러스’ 주유카드

현대카드는 12일 GS칼텍스와 손잡고 주유 카드인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선보였다.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는 신개념 ‘최저가 보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인근 지역 기준 최저 수준의 유가가 적용된다.

최저가는 주유 당일 기준 반경 5km 내 국내 4대 정유사(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동일 유종의 가격을 비교해 결정된다. 최저가 정보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포털 ‘오피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카드 연회비는 1만원이며, 발급 즉시 에너지플러스 앱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안재선 기자

서울 토허제 위축심리 회복… 노원구 허가건수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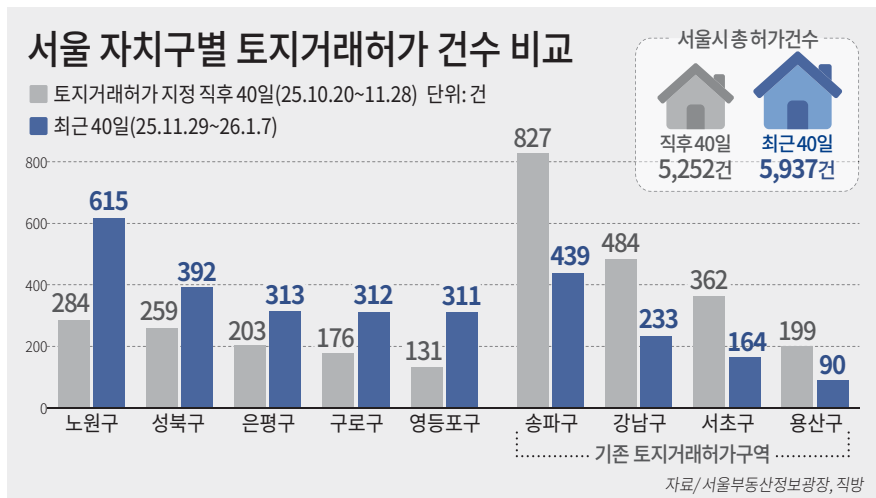
기존 허가구역 접수건수 하락
신규 지정구역 허가건수 상승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규제 직후보다 최근 허가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등 기존 규제 지역보다 노원이나 영등포 등 신규 지정 지역에서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1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 간의 허가건수는 5252건이며, 이후 40일간(2025년 11월 29일~2026년 1월 7일)은 5937건으로 13%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이번 분석은 실거래량 대신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이



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의무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서울시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추가됐다.

직방 관계자는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거래 진입 장벽이 높아졌음에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규

제 시행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특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특성 상 단기적 기대수익보다는 실제 수요에 기반한 거래 흐름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신규로 지정된 지역 간 분위기가 상반됐다.

이전부터 규제가 적용됐던 ▲송파(827건 → 439건) ▲강남(484건 → 233건) ▲서초(362건 → 164건) ▲용산(199건 → 90건)은 접수건수가 줄었다. 반면 ▲노원(284건 → 615건) ▲성북(259건 → 392건) ▲은평(203건 → 313건) ▲구로(176건 → 312건) ▲영등포(131건 → 311건) 등 신규 지정 지역에서는 허가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원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284건)보다 그 이후 40일 동안 약 117% 증가한 61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거래가 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거래가 됐다. 직방 관계자는 “노원은 5억~6억원 대의 가격대로 타 지역 대비 거래가격대가 낮다는 점과 함께 상계, 중계 일대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고 복합정비구역 후보지로 일부 단지들이 거론되면서 노원 일대 매수세 증가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상호금융, 대출 빚장 풀었다… 비조합원 운영 확대

가계대출 총량 규제비율 갱신

지난해 말 가계대출 취급을 축소해 왔던 상호금융이 새해 들어 다시 대출 빚장을 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비율이 신년 들어 갱신되면서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취급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수협 등 상호금융이 지난해 말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하고 나섰다. 새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다시 리셋되면서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운영을 다시 확대했다.

가장 먼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연말 중단했던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신협중앙회와

일부 단위 수협 역시 지난해 말 일시 중단했던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

앞서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연말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 상품 운영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0일까지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중단했으며, 신협중앙회와 수협은 그보다 앞선 11월 중순부터 비조합원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지난해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리며 대출 수요가 늘자, 상호금융이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

기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10조6000억원), 2023년(-27조6000억원), 2024년(-9조8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가계대출 연간 감소 흐름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금융권에게 부과하는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있다”며 “그 목표치가 월별로 균등하게 맞춰서 배분되는 게 아니라 연간으로 제시되다 보니 연말 되면 목표 수치가 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치 관리를 위해 연말에 대출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말에 대출 한파라는 용어가 생기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협중앙회와 수협의 경우는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현행법에 규정돼 있다. 신협은 신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 수산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조합원 고객에게 전체 대출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리셋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공격적인 대출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들의 연초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월별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2월에 대출 상품 자체를 중단했으니 1월에 가계대출이 늘겠지만, 당국의 기조에 따라 유의미하게 1월에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LH 사이버 견본주택 플랫폼 ‘하나로 내집’ 정식 오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이버 견본주택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단지별로 나뉘어 있던 사이버 견본주택 사이트를 하나로 모아 전국의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로 내집’을 통해 지역·평형·분양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하고 세대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인프라 등 주요 정보를 편리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플랫폼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KB국민은행 2026 수능응시자 대상 금융캠프 참가자 모집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까지 KB자산운용과 함께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수능 끝! 미래 준비 스타트 KB금융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KB금융캠프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금융가치관 형성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다음달 4일 KB국민은행 신관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만 24세 이하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를 대상으로 총 100명을 선발하며, 참가 신청은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자는 오는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프로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금융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삼성전자, 폴더블폰·TV·오디오 등 초격차 기술력 입증

Z 트라이폴드 ‘CES 최고의 제품’
S95H ‘최고의 TV 또는 홈시네마’
뮤직 스튜디오 5 ‘최고의 홈 오디오’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CNET)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씨넷은 CES 공식 파트너사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와 협력해 CES 2026 전시 제품을 대상으로 40명 이상의 테크 전문가와 함께 심사를 진행해 수상



관람객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에 마련된 원호텔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구경하고 있다. /삼성전자

작을 선정한다. 새로운 컨셉 제시, 주요 소비자 문제 해결, 성능·품질 기준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총 22개 카테고리에서

63개가 수상작을 선정하고 이 중에서 ‘최고의 제품’ 1개를 뽑는다

씨넷은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눈길

을 사로잡는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으로 슬림한 폼팩터에 폴사이즈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융합된 진정한 하이브리드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더 세련되고 다재다능한 폴더블폰을 만들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의 결실로 모바일 기술을 진일보시켰다고 호평했다.

‘최고의 TV 또는 홈 시네마’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OLED TV 라인업 ‘S95H’가 수상했다. 씨넷은 삼성전자의 OLED ‘S95H’ 라인업이 CES에서 두각을 나타낸 제품이라며 밝기가 전작 대비 35% 밝아졌다고 극찬했다.

삼성 OLED TV 최초로 번인을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 사용자들이 정적인 이미지를 장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

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5000여점의 예술 작품들을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 ‘제로 갭 월 마운트’를 지원해 벽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최고의 홈 오디오(Best Home Audio)’ 부문에서는 CES 2026에서 처음 공개한 삼성 ‘뮤직 스튜디오 5’가 수상했다. 뮤직 스튜디오 5는 삼성전자의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리프’를 디자인한 프랑스 출신 가구 디자이너 에르완 부홀렉이 디자인했다. 이번엔 선보인 스피커는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이며, 블루투스 뿐만 아니라 와이 파이 연결까지 모두 지원해 사용자들은 삼성 스피커와 함께 집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넥센타이어, ‘전문점·렌탈서비스’ 실적 날개

‘타이어테크’ 매장 480개 달성
‘넥스트레벨’ 고객수 65만명 돌파

넥센타이어가 타이어 전문점과 렌탈 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내수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자체 유통망 강화와 장기 고객 확보 전략이 맞물리며 매출 증대와 수익 구조 개선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넥센타이어는 2025년 말 기준 타이어 전문점 ‘타이어테크’ 매장 수가 480개로 늘어나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이용자도 6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넥센타이어의 타이어테크 매장은 판매부터 장착,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며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5년 국내 최초 도입된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은 분할 납부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췄으며, 고객 과실로 인한 파손 및 조기 마모 시에도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리적인 가격 구조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넥스트레벨의 누적 렌탈 고객 수는 2018년 약 10만 명에서 2025년 말 65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렌탈 판매 수량 역시 2021년 100만 개를 돌파한 이후, 2025년 240만 개로 증가했다. 정기 점검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회성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기반으로



넥센중앙연구소 마곡 더넥센유니버시티 전경. /넥센타이어

로 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렌탈 고객의 80% 이상이 엔페라 AU7, 엔페라 슈프림 등 프리미엄 라인업을 선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렌탈 제품군에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에 모두 장착 가능한 EV 루트 라인업인 ‘엔프리즈 S’ 등 신제품을 추가, 변화하는 국내 시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렌탈 고객의 80% 이상이 엔페라 AU7, 엔페라 슈프림 등 프리미엄 라인업을 선택하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렌탈 제품군에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에 모두 장착 가능한 ‘EV 루트’ 라인업인 엔프리즈 S 등 신제품을 추가하

며 변화하는 국내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같은 차별화 전략으로 지난해 사상 첫 연매출 3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 2조356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2조8479억원)의 83%를 달성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고객 경험 측면에서 유통 채널인 타이어테크와 렌탈 서비스는 구매부터 관리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프라인 전문성과 온라인 편의성을 결합한 구조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으로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KGMC, 흑자전환 성공… 글로벌 사업 탄력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5억 기록

KG모빌리티의 친환경 상용차 자회사 KG모빌리티 커머셜(KGMC)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KGMC는 지난해 11M·9M 전기버스 판매 성장을 바탕으로 연간 매출 1077억원, 영업이익 2억5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고 12일 밝혔다. KGMC는 2023년 11월 KG그룹 편입 이후 추진해 온 전사적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 전략을 펴온 결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객체선 KG그룹 회장(사진)은 이를 진두지휘하며 수익성 중심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진행했다.

KGMC는 특히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 ▲비용 및 원가 구조 개선 ▲재무 안정성 확보 ▲책임경영 및 내부 통제 강화와 함께,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시장 대응력 강화를 경영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정했다.



이에 9m·7m 버스 라인업 개발을 통해 기존 주력 차급에 집중됐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신규 수요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단일 차급·단일 시장 의존도를 낮췄다.

KG그룹 인수 직후인 2023년 매출 383억원, 영업손실 67억원에서 지난해 판매대수 303대로 흑자 전환했다.

KGMC는 이번 흑자 전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품질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한 품질경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 공략을 통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GMC 관계자는 “흑자 전환은 경영 정상화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품질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제조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식기세척기 7대 페스티벌’ 개최

온·오프라인몰 구매고객 7가지 혜택

LG전자가 ‘LG 디오스트루스팀 식기세척기’ 출시 7주년을 맞이해 ‘식기세척기 7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LG전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식 온·오프라인몰에서 식기세척기 구매고객 대상 7가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는 2019년 3월 트루스팀 식기세척기 신제품을 출시한 이래, 지난 7년간 6회에 걸쳐 업그레이드 신모형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생의 중요성이 높아진 2022년에는 열풍건조 기능이 추가된 모델을, 2023년에는 14인용 대용량 모델을, 지난해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모델을 출시했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전국 464개 베스트샵 매장에서 LG 디오스 열풍건조 식기세척기 6개 모델을 구매·구독하는 고객들에게는 LG전자 멤버십 포인트 7

만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이에 더해, 식기세척기와 인덕션(3구 와이드존 모델)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10만포인트를, M&B(Must & Best) 패키지로 구매 시에는 최대 20만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행사 모델 식기세척기 구매 후 LG전자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 인증하면 행사 종료 후 멤버십 포인트 3만포인트를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멤버십 앱 카카오톡 공유 이벤트 참여 고객 중에서도 5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같은 기간 LG전자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에서 식기세척기 온라인 전용 모델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도 멤버십 포인트 3만포인트와 식기세척기 세제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구매 후 포토리뷰를 남기면 2만포인트를, 베스트 리뷰어로 선정될 경우 2만포인트를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사이트 신규가입 및 카드사별 결제 혜택도 마련돼 있어 최대 15% 할인도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MM, 국내 최초 풍력보조추진장치 ‘윙세일’ 도입

5~20% 연료절감 효과 기대

HMM이 풍력보조추진장치 ‘윙세일’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풍력보조추진장치(WAPS: Wind Assisted Propulsion System)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운항설비다. 갑판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선박에 적합해 벌크선, 유조선 위주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윙세일은 높이 30m, 폭 10m의 날개를 설치해 항공기처럼 양력을 만들어내는 풍력보조추진장치다. HMM은 5만톤급 중형 유조선(MR탱커) ‘오리엔탈아쿠아마린(Oriental Aquamarine)’호에 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윙세일을 설치해 지난 5일 운항을 시작했다.

윙세일 등은 운항 조건에 따라 최대 5~20%의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료를 절감하면 탄소배출이 저감되기 때문에, 탄소집약도(CII), 온실가스 연료집약도(GFI), 유럽해상연료규제(FuelEU Maritime) 등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친환경 규제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양성운 기자



‘윙세일(Wing Sail)’을 설치한 HMM의 5만톤급 중형 유조선(MR탱커) ‘오리엔탈아쿠아마린(Oriental Aquamarine)’호. /HMM

EV 둔화 속 ESS 입찰 ‘사활’… K-배터리, 물량·수익성 총력

ESS 2차입찰 540MW 사업비 1조대
가격비중 축소 비가격 평가비중 확대
계통연계·안전성·국산화 핵심 변수

삼성SDI NCA 각형 고수 안전성 강조
LG·SK LFP전환 저단가·국산화 맞붙

전기차(EV) 시장 둔화로 실적 부담이 커진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제2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둘러싸고 물량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과 관련한 입찰제안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한다. 사업자 선정은 2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2차 ESS 사업 규모는 총 540MW로, 사업비는 약 1조 원대로 추산된다. 준공 기한은 2027년 12월이다.

이번 입찰의 핵심 변수는 평가 기준 변화다. 2회차 입찰에서는 가격 평가 비중이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졌고,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비가격 평가 비중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계통 연계성, 산업·경제 기여도, 화재 및 설비 안전성 항목의 배점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기술 선택과 국내 생산 기반, 공급 안정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1회차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비가격 부문에서 강점을 앞세워 전체 물량의 80%가량을 확보했다. 삼원계(NCA) 각형 배터리의 안정성과 울산공장 생산에 따른 국산화 기여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

고, 가격 측면에서도 사업 특성에 맞춘 입찰가 설정과 컨소시엄 연계를 통한 비용 절감 전략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물량은 LG에너지솔루션이 수주했으며, SK온은 수주 실적을 내지 못했다.

삼성SDI는 이번 2회차 입찰에서도 NCA 각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NCA 각형 배터리는 내구성이 높고 화재 확산 억제에 유리하

다는 평가를 받는다. 셀 이상 발생 시 인접 셀로 열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No TP(열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일체형 ESS 솔루션인 ‘삼성 배터리 박스(SBB)’ 역시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배터리와 안전장치, 공조 설비를 하나로 통합한 구조로 설치와 운송 효율을 높였고 화재 안전성 강화와 비용 절감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입찰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와 높은 화재 안전성을 강점으로 삼아, 생산 거점을 국내로 전환하며 산업·경제 기여도 평가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에 연 1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LFP 배터리 양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화 설비 없이도 화재 전이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적용해 ESS 안전성도

강화했다.

SK온은 충남 서산 공장 내 일부 라인을 연 3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이는 국내 ESS용 LFP 배터리 가운데 최대 수준의 생산능력이다. 물량 대응력을 앞세워 입찰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SK온과 SK이노베이션은 바나듐이온배터리(VIB) 기반 ESS 전문기업 스탠다에너지와 협력해 ESS 안전성 차별화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성과가 향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ESS 사업 전략과 생산 가동률, 사업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가장 치열한 경쟁”이라며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국내 ESS 물량 확보 여부가 향후 생산 가동률과 사업 지속성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입찰에서 사전 전망과 다른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번 2차 역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메이커스페이스 ‘제조전문형’ 모델 도입

중기부, 시제품부터 초도양산 지원
제조기업 참여설계·공정·원가검증
주관기관 8→13곳 2월 3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제품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2026년 제조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를 13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메이커스페이스는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장비를 활용해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역할에 집중해 왔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시제품 이후 양산 설계, 제품 인증 등 생산 전환 단계에서 벽에 막히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2026년부터 메이커스페이스에 ‘제조전문형 모델’을 도입해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기능을 재설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메이커스페이스는 시제품 제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초도양산 가능성까지 함께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시제품 완성 이후 양산 단계는 창업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제조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제조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이 함께 참여해 설계 검증, 공정 설계, 원가 분석, 양산성 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한 번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스타트업은 시제품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산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을 전년도 8개에서 올해 13개 규모로 확대해 모집할 계획이다. 10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문 장비·인력을 보유한 기관(기업)은 시제품 제작, 양산 설계, 제품인증, 초도양산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단순 장비 제공형 메이커 공간이 아니라 전문기업의 공정·양산 노하우와 메이커스페이스의 창작·실험 기능을 결합한 지역 제조전문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정원 창업정책관은 “메이커스페이스는 단순한 메이킹 공간이 아니라 전문기업과 함께 제품화·초도양산까지 책임지는 제조창업 거점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실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조창업 생태계를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웅진프리드라이프, 상조서비스 전면 개편

‘웅진프리드360, 450, 540’ 선택

상조 업계 1위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웅진그룹 편입 후 처음으로 상조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5년 만에 상조라인업을 새롭게 정비한 ‘웅진프리드360, 450, 54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웅진프리드’ 시리즈는 웅진그룹 편입 후 처음으로 ‘웅진’ 브랜드를 정식으로 붙인 상조 서비스다. 웅진그룹의 신뢰와 프리드라이프의 장래 전문성이 결합한 상품으로 의전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웅진프리드360’은 합리적인 가격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담은 에센셜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2명, 수의, 상복 8벌을 제공한다. ‘웅진프리드450’은 서비스와 품질의 균형을 갖춘 스탠다드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4명, 수 명품 수의, 상복 10벌을 제공하며 의전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



‘웅진프리드 360, 450, 540’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 ‘웅진프리드540’은 최상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5명, 특 명품 수의, 상복 20벌, 꽃제단 지원금 30만원을 제공한다.

상조 가입 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케어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 리조트, 반려동물 돌봄, 홈케어 등을 다양한 서비스를 가입 즉시 멤버십 우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中企公제기금 가입업체 대상 ‘이차보전 대출’ 시행

중기중앙회, 지자체와 이차보전 협약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 1~3% 지원
공제기금 대출금리 최저 2.6% 가능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교양, 춘천, 원주, 천안, 포천)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

1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 2025년에는 3100개 업체가 2540억원의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산방지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의 금리로 신용대출(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는 경우 최저 2.6%까지 금

리 부담이 낮아져 가입업체의 만족도가 높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사이버 침해 정황 신속대응

KISA 신고·원인 조사 착수

교원그룹이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즉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 고객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다. 12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내부 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측은 사고 인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관련 수사 기관에 침

해 정황을 신고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외부 전문 보안 업체와 협조해 사고 원인 파악 및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객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그룹은 이번 사고의 원인 및 피해 정도 및 복구 상황 등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까 래 아 까 수 없 는 무 적 의 치 킨 버 거

통다리 크리스파 치킨버거



침착맨'S PICK

침착맨

파이어핫



그릭랜치



LOTTERIA™ ×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압도적 1위는 LG… 국가대표 AI 변수는 ‘독자성’

15일까지 1차 평가 후 탈락팀 확정
‘K-엑사원’, 글로벌 톱 10 진입
중국 AI 기술 차용 두고 설왕설래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프로젝트의 첫 번째 관문인 1차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내 인공지능(AI) 업계가 들끓고 있다. LG AI연구원의 ‘K-엑사원(EXAONE)’이 국내외 주요 지표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독자 기술’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탈락팀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각 기업이 공개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LG AI연구원의 K-엑사원은 전체 13개 공통 벤치마크 테스트 항목 중 10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다. 종합 평균 점수 72점을 기록한 K-엑사원은 중국 알리바바의 ‘큐원3’와 미국 오픈AI의 ‘GPT-OSS’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능 평가 기관인 아티피셜어널리시스의 인

국가대표 AI 5종 성능(벤치마크) 비교	NAVER Cloud 하이퍼클로바X시드싱크	upstage 솔라오픈	SK telecom 에이닷엑스케이원	NCAI 배기	LG AI연구원 케이엑사원
전문지식 (MMLU-PRO)		80.4점	81.5점	71점	83.8점
과학 추론 능력 (GPQA-Diamond)		68.1	74	53.2	79.1
전문지식 (HLE)		10.5	7.2	5.9	13.6
코딩 능력 (LiveCodeBench V6)		74.2	75.8		80.7
지시 수행 능력 (IFEval)		88	80.4	86	89.7
에이전트 능력 (타우스케일텔레콤)	65.1점	55.6	58.1		73.5
한국 전문 지식 (KMMLU-PRO)		64	68.1	58.4	67.3
한국어 이해 (KoBALT)	50.6	44.3	48.8	47.5	61.8
한국 문화 (CLiCK)	75.2	78.9	84.9	75.5	83.9

자료/각사

텔리전스 지수에서 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세계 7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 모델 중 유일하게 글로벌 톱10에 진입한 성과로, 데이터 양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론 속도를 150% 높이는 멀티 토큰 예측(MTP) 기술과 독자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 ‘아가포(AGAPO)’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성능 면에서는 LG가 앞서갔으나 다른 기업들도 특정 지표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의 ‘에

이닷엑스케이원(A.X K1)’은 519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초거대 모델로서 고난도 한국어 평가인 ‘KMMLU-Pro’에서 68.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모델의 개방성 측면에서도 아파치 2.0과 MIT 라이선스를 각각 채택한 SK텔레콤과 NC AI가 상업적 이용과 수정 배포 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의 최대 변수는 기술적 수치가 아닌 ‘독자성’ 논란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등이 중국의 AI 기술을 일부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프로젝트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시선은 중국 지푸(Zhipu) AI나 알리바바의 모듈 및 추론 코드를 가져다 쓴 것을 과연 국산 ‘독자 모델’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안내서에는 해외 모델의 파인튜닝을 통한 파생형 모델은 독자 개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항이 존재한다.

“AI 채팅으로 서류 발급·시설 예약까지”

네이버 내달 ‘AI 국민비서’ 선보일
별도 앱 설치없이 접근·편의성 높여

오는 2월부터는 급하게 민원 서류가 필요하거나 공공 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별도의 공공 앱을 설치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의 인공지능(AI)이 채팅창의 대화만으로 서류 발급과 공공 시설 예약까지 처리하는 기술을 제공해 공공 서비스 혁신이 본격화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오는 2월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 AI 국민비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를 공공 서비스에 연계한 것이 핵심이다. 단순 정보 안내를 넘어 실제 행정 업무

처리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AI 국민비서는 국민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버 웹이나 앱에서 제공되는 ‘네이버 톡톡’ 채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이전처럼 개별 공공 앱을 내려받거나 로그인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용자는 채팅창에 “주민등록등본 발급해 줘”라고 입력하는 것만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유누리’와도 연동돼, 인근 공공 테니스장이나 회의실 예약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역시 몇 차례 대화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과 절차 부담

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 같은 기능을 단순 검색이나 상담 수준이 아닌, 사용자의 요청을 실제 결과까지 연결하는 ‘행동형 AI’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정보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명서 발급이나 예약 완료 등 실질적인 행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차별점이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 기능을 고도화한 ‘AI 탭 통합 에이전트’ 형태로 서비스를 확장 제공할 계획이다.

AI 도입은 시민 편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업무 현장으로도 확대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부산광역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이퍼클로바X 기반 행정 AI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 지자체 행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사례다.

부산시 공무원들은 협업 도구 ‘네이

버웍스’에 탑재된 ‘AI 부기 주무관’을 활용하게 된다. 이 AI는 부산시의 행정 규정과 업무 사례, 지역 정보 등 약 16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해 민원 대응, 규정 질의, 반복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법령과 지침 검색은 물론 정책 보고서와 문서 초안 작성 등 총 22종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 사고 당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효율성을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러한 공공 행정 AI 도입을 ‘모두의 AI’ 전략의 핵심 사례로 보고 있다. 자국의 언어와 행정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버린 주권 AI’ 전략에 기반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해외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영역에 적합한 AI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도 담겼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유플러스가 새해를 맞아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블’의 혜택을 강화했다. /LG유플러스

“배민클럽 2개월 무료”
LGU+, 멤버십 강화
‘유플투블데이’ 통해 혜택 확대

LG유플러스가 새해를 맞아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블’ 혜택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고객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유플투블데이’를 통해 통합앱 ‘유플러스원(U+one)’에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배달 혜택을 강화했다. 통신사 최초로 배달의민족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 2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멤버십 VIP 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15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기존 배달의민족 할인 혜택도 이어진다. 13일에는 ‘배달의민족×멕시카나 치킨’ 9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이 밖에 15일 다운타운 25% 할인, 19일 오투기물 30% 할인, 20일 CGV 유플투블 세트 무료, 21일 스타벅스 별리워드 8개 제공, 22일 공차 30% 할인, 23일 사조물 30% 할인 등 식음료 관련 혜택이 마련됐다.

겨울방학을 맞아 체험형 혜택도 추가했다. 15일 비발디파크 리프트 50% 할인, 19~23일 판타와 지노의 공통탐험전 30% 할인, 21일 아쿠아필드 40% 할인, 22일 주름주름 입장권 35% 할인 등이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이노시물레이션, ‘E-모빌리티 검증’ 수주

7억 규모… 실물 검증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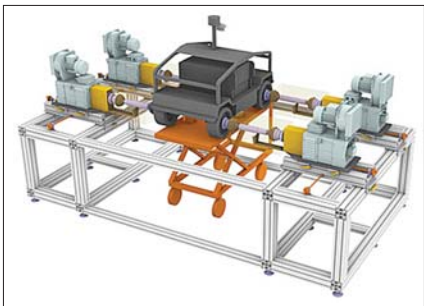
이노시물레이션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주관하는 ‘E-모빌리티 성능 시험 장비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주 규모는 약 7억 원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노시물레이션은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의 가상 시물레이션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실제 물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자율주행 로봇과 전동 이동수단 등 이른바 ‘피지컬 AI’

적용 분야에서 실물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AI 산업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학습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작동하는 피지컬 AI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자율배송 로봇, 전동 킥보드, 무인 이동체 등 E-모빌리티 분야는 이러한 흐름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영역으로 꼽힌다.

다만, 시물레이션 환경에서 학습된 AI를 실제 도로와 물리 환경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오차와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과 직결되는 검증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노시물레이션의 E-모빌리티 성능시험 장비. /이노시물레이션

이번에 구축되는 성능 시험 장비는 실험실 환경에서 실제 주행과 유사한 물리적 부하를 재현해, 자율주행 로봇과 전동 이동수단의 하드웨어 성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구동 모터 반응, 조향 정밀도, 출력 및 토크 제어 등 주요 물리 요소를 정량적으

로 측정·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실도로 테스트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고 사고 위험이 수반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장비는 정밀한 가상 시나리오와 하드웨어 연동 시험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줄이고, 개발 효율성과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시물레이션은 그동안 국방·항공 분야에서 하드웨어 연동 시물레이션(HILs)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당 기술을 자율주행 로봇과 민간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장하게 됐다. KTL과는 과거 실의배송로봇 시물레이션 협업에 이어, 실물 성능 시험 장비 구축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김서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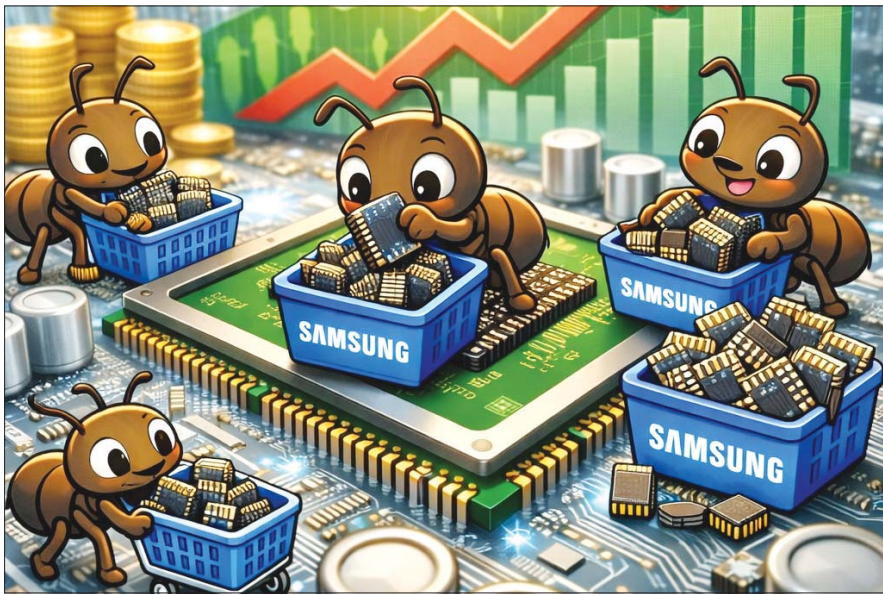
“빛내서 삼성전자 주식 산다”… 빗투·투자자예탁금 최고조

신용융자 잔액 28.3조 ‘사상 최대치’
삼성전자 신용잔고 금액 1.9조 기록
SK하이닉스 대차잔액 12조 돌파
월급 제자리에 주식·부동산 ‘눈길’

“월급 빠른 집값도 주식도 다 올랐어요. 노동가치가 떨어지는 거 같아 회사 일보다 주식 투자에 집중하게 돼요”

20대 회사원인 이태연(29) 씨 얘기다. 그는 지난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모아둔 돈까지 합쳐 1억2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1년여 사이 30%의 수익을 손에 쥐었다. 그는 “투자로 돈을 벌어보니 예전만큼 업무에 몰두하기 어렵다”며 “요즘은 주식뿐 아니라 미국 국채를 비롯해 금·구리 등 원자재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신용거래용자도를 알아 보는 중이다.

월급보다 주식·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으로 눈을 돌리는 개미가 늘고 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이 동시에 들쭉이면서 ‘빗투(빚내서 투자)’가 한파를 녹일 만큼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는 개미(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28조349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용융자란 증권사 고객이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반도체 종목에도 빗투가 몰렸다. 9일 기준 삼성전자 신용잔고 금액은 1조995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삼성전자의 신용융자잔고 금액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8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하루에만 1755억원이 유입됐다.

대차거래 잔액도 급증했다. 지난 9일 기준 삼성전자의 대차잔액은 13조741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SK하이닉스도 12조원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대차잔고 증가는 향후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물량이 늘었다는 뜻이다. 주가 조정예에 베틀하려는 대기 자금도 최대 수준으로 쌓였음을 보여준다.

월급보다 주식·부동산 같은 자산소득으로 눈을 돌리는 개미들이 늘고 있다. 자산 가격은 급등하는 데 예·적금 등으로 월급만 모아선 자산을 늘릴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다. 근거 없는 생각이 아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평균가격은 ㎡당 1649만원으로, 2015년 같은 달(644만원)보다 2.5배 상승했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5431만원으로, 10년 새 3000만원 이상 뛰었다.

반면 근로소득은 거북이걸음이다.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8월 기준 320만원으로, 10년 전(230만원)보다

3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회사원 김대관(28) 씨는 월급의 70~80%는 증권계좌에 넣는다. 김 씨는 “평생직장이란 건 없고 월급도 오르지 않아 항상 불안하다”며 “우선은 월급 이외에 주식으로 매달 50만원씩 월세 낼 만큼 버는 게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시중 뭉치돈도 증시 주변을 맴돈다. 지난 9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8조8720억원에 달한다. 지난 8일에는 사상 첫 90조원(92조8537억원)을 돌파했다. 투자자예탁금은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주식투자 열기의 가능성 역할을 한다.

개미들의 빗투 행렬에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과 조바심이 깔려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최근 주식시장 중심으로 대출받아 주식 사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증시가 크게 조정받으면 자산기반이 취약한 젊은 층의 타격이 클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미래에셋證, ‘스페이스X’ 업고 신고가 행진

스페이스X, xAI 등에 약 1조 투자
향후 투자자산 평가이익 반영 본격화
XOVR, 우주 ETF 등 대안투자 관심 ↑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관련주인 미래에셋증권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12일 미래에셋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5.72%(15500원) 오른 2만8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3만4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스페이스X와 xAI 등 비상장 유니콘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은 2022년부터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에 투입된 그룹 자금을 약 4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X(옛 트위터) 인수 자금과 xAI 투자까지 더하면 머스크 생태계에 묶인 규모는 1조원에 근접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나증권은 향후 스페이스X를 비롯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메가 로켓) 스타십이 지난해 10월 13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시 기지에서 11번째 시험 발사되고 있다. /AP, 뉴시스

한 투자자산의 평가 이익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의 목표 주가를 2만6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올렸다.

고연수 연구원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투자 목적 자산은 약 10조원으로, 향후 스페이스X를 비롯한 비상장 투자 자산의 평가이익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1조6000억원, 1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스페이스X의 경우 4분기 중 새로운 투자 라운드가 클로징(마감)되지 않아 관련 평가이익은 올해 연중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8000억달러 기업가치 기준으로는 향후 약 6000억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 대안 투자처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중 하나가 미국 상장 ETF인 ER셰어스 프라이빗·퍼블릭 크로스오버 ETF(XOVR)다. XOVR은 스페이스X 비중을 지난해 말 2%대에서 이달 10%까지 늘렸다. 엔비디아와 메타 비중보다 크다.

국내에서는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 PLUS 우주항공&UAM ETF, TIGER K방산&우주 ETF 등이 최근 한 달 30~5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KODEX ETF’, 순자산 120조

국내증시 회복·연금투자 수요 영향

삼성자산운용의 KODEX ETF가 순자산 120조원을 넘어섰다.

12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KODEX ETF의 순자산총액은 9일 기준 120조53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15일 국내 ETF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86일 만에 20조원 이상이 추가로 유입됐다. 하루 평균 2300억원 이상이 순유입된 셈이다.

이번 성장은 특정 상품군에 대한 몰림이 아니라 폭넓은 상품군 전반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100조원 돌파 이후 순자산이 1조원 이상 늘어난

상품은 7개, 1000억원 이상 증가한 상품은 44개에 달한다.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파생형, 인컴형 상품이 동시에 몸집을 키우며 KODEX 전체 자산을 끌어올렸다.

자금 유입의 중심에는 국내 증시 회복과 연금 투자 수요가 맞물린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은 10조 3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고, 해외 주식형 ETF도 4조 4000억원 늘었다. 배당과 인컴 수요가 집중된 커버드콜 ETF 역시 1조 90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대표지수 ETF로의 몰림이 두드러졌다. KODEX 200에는 2조

4000억원이 유입됐고, KODEX 200TR도 1조 2000억원 늘었다. KODEX 200 타겟유틸리티커버드콜 역시 9000억원이 추가되며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어모았다. 해외 주식형에서는 KODEX 미국S&P500이 1조 7000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이 1조 4000억원 증가하며 글로벌 대표지수 ETF가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지난해 10월 ETF 순자산 100조원 돌파 이후 추가로 20조원이 쌓이는 과정에는 코스피 5000을 향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응원이 있었다”며 “KODEX ETF를 통해 투자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과 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한양證 “중대형 증권사로 성장해 나갈 것”

김병철 부회장 ‘타운홀 미팅’

“전문성을 갖춘 프로페셔널 조직을 지향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중대형 증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

한양증권은 지난 6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LIVE 타운홀 미팅 ‘2026 : The Next Chapter’를 현장과 자사 유튜브 동시 송출을 통해 진행하고, 회사의 성과와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병철 한양증권 부회장은 이같이 밝히며 2025년 하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을 향한 전략적 방향성과 조직 운영 철학을 설명했다.

대주주 변경 후 조직 전반 안정제도 사업구조 재정비·중장기 경쟁력 강화 리테일 부문 구조적 개선 등 중점과제



지난 6일 김병철 한양증권 부회장(가운데)이 임직원들과 함께 최고경영자(CEO) LIVE 타운홀 미팅 ‘2026 : The Next Chapter’를 진행하고 있다. /한양증권

다. IB 부문 역시 ECM(주식금융)과 DCM(채권금융) 영역에서 강점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한편, 글로벌 IB 등 신규 영역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중점 과제로는 리테일 부문의 구조적 개선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오프라인 중심의 리테일 사업 모델을 온라인과 자산관리(WM) 중심으로 재편하고, RP·펀드·채권 등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 개편 역시 주요 과제로, 국내 주식 매매 중심 구조에서 금융상품과 거래 편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주식 대차 중개 등 신규 사업에도 순차적으로 진입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장외파생상품 투자 매매업 진출을 위한 인가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연간 세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준비된 중대형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부 통제와 시스템 정비, 리스크 관리 역량 고도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송미령 “K-푸드 잠재력 무궁무진… 한식학교 등 정책 다각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장관, 주요현안 관련 언론설명회
K-푸드, 양적·질적 성과 혁신 강조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철저 단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언급했다. 어린 시절 한국산 음식을 맛본 이른바 ‘K-푸드 키즈’가 성인이 되어서도 K-푸드를 즐기는 소비 성향이 세계 각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다.

송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현안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올해가) K-푸드 수출의 양적·질적 성과 측면에서 완전히 패턴을 바꾸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푸드’와 ‘뷰티’는 통상의 수출 품목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인들이 한국산 자동차 한 대 구매하려면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반면, 식품과 화장품 등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그는 “일단 한번 써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며 “어린 나이에 젊은이들이 도전한 것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소비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속적으로 상생세를 타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관 소비”를 강조했다. K-푸드, 뷰티, 소비재 등 함께 패키지 형태

로 특정 국가에 공략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확 늘어난 거 실감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것들을 갖고 자국에 가서 지속적인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내한 관광객들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전략에 따라 한식학교 및 미식벨트 등을 좀더 다각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푸드 수출액 관련 질의에는 “당장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 해도 갈아놓은 노력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힘을 써야 이 부분이 어느 순간 뚫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목표라는 게 사실 직선형으로 갈 수 있지만 계단식이 될 수도 있다. 정책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단계 훑 올라간다”고 했다.

이날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 5.1% 늘었다. K-푸드+란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K-푸드+ 수출액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22년(119억2000만 달러) 이래 매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부정 수급을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각 읍·면·군에 신고센터가 있다. 주소만 옮긴 건지 실제 거주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고 했다. 이어 “단약 (비거주자에게) 지급이 돼서 (부정) 사용을 했는데 적발될 시 회수를 하고, 이후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철저히 검증해서, 원래의도를 훼손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면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김정관 장관 “가짜 일 덜고 ‘진짜 성과’ 증명” 구인배수 0.39… 실업급여 지급 사상 최대

산업부 업무보고 마무리

AI 대전환·MASA 금융 지원 등 의제
김 장관, 사회적 책임·안전 문제 강조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초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분야와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과장, 담당 사무관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생과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산업 분야 업무보고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 탄소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5급3특 기반 지역 성장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I)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자원·수출 분야 업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산업 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보고에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강화,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 재자원화산업 육성, 공공비축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겨냥한 금융·투자 지원과 시장·품목 다변화 전략,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금융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총 4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회적 책임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 과제를 관리카드로 체계화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용부 2025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기업 구인수요 반등에도 취업난 여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구직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기업의 구인 수요가 3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구직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자리 1개를 놓고 3명 가까이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24를 통한 기업 구인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했다. 기업 구인 증가세는 34개월 만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구직인원은 43만2000명으로 10.0% 늘어나면서,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39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0.4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체감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 줄어 2022년 9월 이후 40개월 연속 감소세

를 이어갔다. 인구 감소 영향이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인 청년 취업처의 고용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청년 일자리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내국인 기준으로는 27개월째 줄고 있다. 건설업 역시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두 업종 모두 청년층 비중이 높은 분야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단기적으로는 지급자 수가 줄었지만, 고용안정망의 존속도는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54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가입자는 16만4000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정위, ‘소비자24’ 서비스 환경 개선

정보 접근성·이용 편의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환경에 맞게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과정을 지원

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으로, 현재 9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8년 5월 서비스 개시 이후 소비자 정보 창구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편에서는 범정부 디자인 표준인 ‘KRDS(Korea Design System)’를 적용해 화면 구성과 메뉴 체계를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시각적 편의성도 강화됐다. 기존 화면

대비 가독성을 높인 ‘선명한 화면’ 기능을 추가해 시각기능에 제약이 있거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크모드와 유사한 기능으로 콘텐츠 가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상품 및 안전정보를 품목·유형별로 재구성해 물품 정보, 리콜 정보,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관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선제적 농업용수 확보 대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모내기 철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62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관리를 시작했다. 해당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한편, 인근 하천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등 현장 맞춤형 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 대책 TF(전담반)를 가동하고 있다.

주요일 한국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이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기후변화 속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용수 확보와 관리에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경북도, 대표 전략산업으로 ‘가상융합’ 낙점

올해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신설 콘텐츠 제작, 실증 인프라 확대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해 DX 가속 기업·인재, 발굴·육성·지원 박차

경북도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기반으로 한 가상융합산업을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나선다.

경북도는 ‘경북도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신설될 예정인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인프라·콘텐츠·기업·인재가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가상융합산업을 경북의 대표 전략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추진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글로벌 기업들의 엑스알(XR) 기기 출시가 가속화되면서 가상융합산업이 지역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 시장 통계기관 스탯ISTA에 따르면 세계 가상융합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97조원에서 2030년 약 660조



지난해 열린 ‘경북도 AI 메타버스 영상제’.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37%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경북도는 2025년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진 뒤, 2026년부터 네 가지 핵심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콘텐츠 제작과 실증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제 공동 제작과 실증이 가능한 국제 가상융합제작허브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영상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가상

융합 콘텐츠 확산을 뒷받침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 디지털트윈 기반 원격공장 구축 사업과 물리 인공지능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제조 산업의 구조 전환과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6년에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어촌지역 현안 해결 서비스 플랫폼을 공개해 포항 구룡포·호미곶 일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재난 대응과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플랫폼 육성

도 병행한다. 2025년 문화·산업 융합형으로 전환한 경북 국제 에이아이 메타버스 영상제를 2026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산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제3회 영상제에서는 총상금 1억원 규모의 에이아이 영상 공모전을 통해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과 창작자를 발굴한다. 공공 가상스튜디오와 영상제 연계를 통해 콘텐츠 제작과 인프라 활용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지원센터와 경북 글로벌 게임센터를 거점으로 스마트글래스 핵심 부품 제조기업과 게임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이어가고, 대학생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가상융합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에이아이과학국장은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북이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주시

아동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 운영

경남 진주시는 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곳에서 아동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진주지역에서는 6개 지역아동센터(도담, 동진주, 비전, 셀리, 이현, 아이마당)가 참여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동이 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

경주시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인상하고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경주시지역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4만 9052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69.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1936억 2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기장군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기장군이 동남권원자력의학과 연계한 ‘2026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186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 사업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암 종합 검진과 뇌혈관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에 따라 검진비가 차등 지급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등 80만원 전액을 받는다. 이 외 40세 이상 군민은 70만 원을 지원받고 1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신중년 600명 일자리 창출

부산시는 50~64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일자리’, 신중년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일자리’, 민간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돌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적일자리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확대해 240명으로 늘린다. 1인 가구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해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된 일자리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지난해 133억弗 규모 방산수출 부산시, ‘CES’서 418억 규모 계약추진

국내 전체 방산 수출액 80% 이상 수출 가속화 위해 원스톱 지원 강화

경남도는 관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지난해 133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방산 수출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방산 수출액 152억 달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중남미, 동남아 등 신흥 시장 확대와 대형 무기체계 수출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경남도는 올해 방산 수출 가속화를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지원, 방산 부품 국산화 개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 제고, 경남방산수출지원단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미 조선 산업 협력 확대에

대응해 경남형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2026년부터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각각 495억원씩 투입한다.

중소조선소의 MRO 산업 전환을 위해 함정 정비용 야드 시설 임차, 함정 정비 자격(MSRA) 인증 취득, 미 해군 함정 MRO 대응 통합 공급망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

경남도는 2026년 정부 공모로 사업 주관 기관을 선정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해 2030년까지 총 9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함정 MRO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경남을 아시아·태평양 함정 MRO 거점이자 글로벌 방산 수출 핵심 지역으로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지역기업 글로벌 진출 ‘역대 최대’

부산시는 지난 6~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분야 관련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CES에서 통합부산관을 운영하며 총 443건의 수출 상담과 2867만 달러(약 418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1년 내 계약 성사 예상 금액)을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사와 해외 바이어와의 1대1 비즈니스 미팅 실적도 65건에 달했다.

이번 CES에서 부산지역 기업들은 제품 전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스마트항만 등 시가 중점 육성 중인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과 상용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사 기간 현대차그룹 전시관을 방문해 서비스 로봇과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박형준 부산시장이 현지시각으로 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중인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 삼성관을 둘러보고 있다. /부산시

살펴보고 해당 기술과 부산시가 육성 중인 로봇 산업 간 협력 및 실증 연계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는 항만·물류·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실증 환경을 갖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로봇·AI 융합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기업들도 투자 유치와 글로벌 협력, 기술검증(PoC)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24시간 화상치료 센터’ 시범운영

오는 3월부터 3년간 운영

경북 포항시가 시민 생명 보호와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화상 치료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상 전문 병원이 없어 대구 등 다른 대도시로 원정 진료를 가야만 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에서 하루 평균 1건 꼴인 연평균 35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역 화상 환자가 매년 5680명이 발생하지만 전문 치료 센터가 없어 매년 800명 이상의 환자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철강·이차전지 등 국가 기간 산업의 특성으로 화상 사고 위험이 크고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재난 환경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24시간 진료 가능한 화상 치료 센터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1개를 선정하고 3월 문을 열어 2028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6억원(시비 21억 6000만·의료기관 자부담 14억 4000만원)이다. 시는 선정된 의료 기관에 화상 전담 의료 인력(의사 2명·간호사 6명)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주시, 전통시장 5개소 활성화 지원

중기부 주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영주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5개 시장이 활력 회복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영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연했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육성해, 상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이다.

정교완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K-베이커리, 美 시장 정조준… 출점확대·현지생산 ‘투트랙’

SPC ‘파리바게뜨’

뉴욕 등 핵심상권 중심 공격적 출점
내년 텍사스 제빵공장 가동 예정

CJ푸드빌 ‘뚜레쥬르’

직영점 통해 브랜드 경쟁력 제고
생산공장 등 현지 인프라 본격 투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미국 베이커리 시장에서 서로 다른 전략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핵심 상권 중심의 공격적 출점과 브랜딩으로 시장 외연을 넓히는 전략을 택했다면, 뚜레쥬르는 현지 대형 생산공장 가동을 통한 공급망 안정과 원가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파리바게뜨는 미국을 글로벌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브랜딩과 출점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뉴욕·LA 등 문화 중심지에서의 대형 마케팅부터 텍사스를 축으로 한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까지 병행하며 북미 전역으로 사업 반경을 빠르게 넓히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 록펠러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다. 파리바게뜨는 2년 연속 이 행사에 참여해 홀리데이 시즌 케이크를 선보였다. 1959년부터 이어진 이 행사는 미국 전역에 NBC를 통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조감도.

/SPC그룹



뚜레쥬르 매디슨 스퀘어 파크점 외관.

/CJ푸드빌

해 생중계되는 상징적 이벤트로, 방송 진행자들이 파리바게뜨 제품을 직접 시식하며 소개해 브랜드 노출 효과를 극대화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홀리데이 시즌 영상을 상영하고, CBS ‘드류 베리모어 쇼’를 통해 굿즈를 소개하는 등 미디어 접점도 공격적으로 넓혔다.

스포츠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구단 로스앤젤레스 FC(LAFC)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스포츠 마케팅에 나섰다. 파리 생제르맹(PSG), 토트넘 홋스퍼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스포츠 협업으로 ‘PLAY BOLD’ 캠페인을 통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외형 확장 속도도 가파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북미 전역에 신규 매장 150

개를 열었으며 올해 400호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저지·매사추세츠 등 기존 거점은 물론 미주리, 아칸소,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등 미진출 지역으로 출점이 다변화되고 있다. 북미 매장의 약95%가 가맹 형태라는 점도 빠른 확장의 배경이다.

실적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2019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0분기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미국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0% 성장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에 대규모 제빵공장을 건설 중으로 내년 1차 가동을 시작해 2029년까지 약 2만 8000㎡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북미 전역 공급은 물론 물류 효율

화, 원가 경쟁력 확보, 관세·통상 리스크 대응을 담당하는 전략적 허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반면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생산 인프라를 앞세운 ‘내실형 확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출점 확대와 함께 현지 대형 생산기지를 구축해 공급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뚜레쥬르는 2030년까지 미국 내 1000호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미국에 첫 진출한 이후 현재 미국 매장은 170개 이상으로 늘었으며, 미국은 전체 해외 사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매장의 90% 이상이 가맹점이며 다점포 가맹점주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적 개선은 더욱 두드러진다. CJ푸드빌 미국 법인 매출은 2021년 510억원

에서 2023년 105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46억원(2021년)에서 364억원(2024년)으로 급증하며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직영점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해 12월 뉴욕 맨해튼 플랫아이언 디스트릭트에 동부 지역 첫 직영점인 ‘뚜레쥬르 매디슨 스퀘어 파크점’을 열고, 프리미엄 K-베이커리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매장은 미국 시장 내 브랜드와 제품 경쟁력을 점점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산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됐다. CJ푸드빌은 미국 조지아주 홀카운티 게인스빌 지역에 약 9만㎡ 규모의 신공장을 완공했으며, 올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냉동생지와 케이크 등을 연간 1억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갖춘 이 공장은 미국 전역 매장 확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맡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을 단순한 해외 사업이 아닌 글로벌 성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며 “브랜딩과 출점, 현지 생산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워홈, 단체급식 시장 신규수주 ‘역대 최대’

한화그룹 편입 이후 체질개선 효과
지난해 기존 고객 85% 재계약 성공

아워홈이 단체급식 시장에서 창사 이래 최대 신규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기존 고객 재계약률도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나타내며, 한화그룹 편입 이후 본격적인 체질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워홈은 지난해 단체급식 시장 신규 입찰 물량 가운데 약 30%를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업계 전반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단일 사업자가 신규 물량의 3분의 1가량을 확보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꼽힌다.

기존 고객 이탈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지난해 계약 만료를 앞둔 고객사 중 85%와 재계약에 성공하며 최근 5



인기 외식 브랜드와 협업한 메뉴가 제공된 아워홈 운영 구내식당 모습.

/아워홈

년간 최고 재계약률을 기록했다. 인수 초기 제기됐던 조직 안정성과 서비스 연속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실적으로 상쇄한 셈이다.

이번 성과는 한화그룹 편입 이후 제시한 중장기 전략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

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김동선 한화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인수 직후 비전 선포식에서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원가구조 개선, 생산·물류 효율화, 주방 자동화 기술 고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아워홈이 단체급식 시장의 경쟁 기준을 ‘가격’ 중심에서 ‘경험과 품질’로 끌어올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구내식당을 체험형 콘텐츠 공간으로 재구성한 전략이 고객 만족도와 이용률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수주와 재계약은 서비스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며 “한화 편입 이후 나타난 변화가 현장과 고객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대상그룹, 데이터 기반 B2B 영업 강화

외식·급식 분야 등 시장 점유율 확대

대상그룹이 B2B 영업 분야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T)을 통해 데이터 기반 체계를 구축하며 B2B 시장의 디지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상그룹은 2023년부터 B2B 영업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B2B 영업 전 영역을 대상으로 각 채널별 고유 특성을 고려해 ▲외식 프랜차이즈 마케팅 및 고객사 심층 분석 자동화 ▲학교급식 데이터 자동 분석 ▲군급식 시장 관련 정보 통합 제공 ▲산업체 영업 분석 체계 고도화 등 맞춤형 디지털 전환 모델을 단계별로 구축했다.

/신원선 기자

이같은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성과는 영업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업무의 효율화다. 수작업 중심의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 결과, 대상그룹은 지난해 B2B 시장 동향 및 타깃 고객사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대비 82% 단축시켰고 연간 5400시간의 업무 시간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개척 시장을 발굴하고 고객사별 맞춤형 전략을 제안하는 등 영업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신규 시장 진입 속도가 가속화되고 기존 시장 점유율 또한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롯데마트, 설 선물 ‘가성비’ 승부… 절반 이상 5만원 미만

과일·수산물 등 ‘가격 방어’ 주력

롯데마트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겨냥해 올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5만원 미만의 가성비상품으로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재료 가격 상승 여건 속에서도 주요 인기 품목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직전 명절 대비 실속형 상품 비중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

이다.

명절 대표 선물인 과일 세트는 전통 품목부터 수입 과일까지 3~4만 원대로 폭넓게 마련했다. ‘GAP 사과(11~12입)’와 ‘나주 청미래 배(7~9입)’, ‘상주 귤감(30입)’은 엘포인트 회원가 기준 3만9900원에 판매한다. 제주 한라봉, 레드향 등 만감류 세트도 3~4만 원대에, 샤인머스캣과 오렌지, 자몽 등도 3만9900원에 선보이며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견과류와 수산물, 김 선물세트 역시 ‘가격 방어’에 주력했다.

견과 매출 1위인 ‘매일견과 하루 한 줌’은 고환율로 인한 아몬드 시세 상승에도 가격을 동결해 2만9900원에 판매하며 물량은 20% 늘렸다. 수산물 코너에서는 홍계 선물세트를 50% 할인한 3만9950원에, 연어 선물세트는 1만 원 할인해 3만원대에 내놓는다. 김 세트 역시 전 품목 가격을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웰푸드, ‘프리미엄 가나’ 신제품 선보

김연아 광고 캠페인 본편 공개

롯데웰푸드는 ‘프리미엄 가나’의 앰배서더 김연아와 함께한 광고 캠페인의 본편을 공개하고, 베리(Berry) 콘셉트의 겨울 시즌 한정 신제품 3종(사진)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광고 캠페인 본편 영상은 총 3편으로, 각각 ‘프리미엄 가나 트리플 베리’, ‘프리미엄 가나 쿠키 베리’, ‘프리미엄 가나 랑드샤 치즈 베리’ 제품을 하나씩 조망한다. 딸기, 라즈베리, 복분자 등 베리류를 핵심 소재로 활용한 제품의 특



징을 직관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내달 14일까지 TV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주요 매체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프리미엄 가나 신제품 3종은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업계 최대 적립” SSG닷컴, 장보기 시장 1위 탈환 승부수

신규 멤버십 ‘쓱세븐클럽’ 선포
결제 금액 7% SSG머니로 적립
월 구독료 2900원…OTT 옵션도

SSG닷컴이 ‘업계 최고 적립률’을 앞세운 신규 멤버십 ‘쓱세븐클럽’을 론칭하며 장보기 시장 주도권 탈환에 나섰다. 복잡한 혜택 구조를 대폭 단순화하고 직관성을 강화한 이번 승부수가 치열한 이커머스 멤버십 경쟁의 판도를 흔들지 주목된다.

SSG닷컴은 최근 쓱세븐클럽 출범을 알리고, 이달 14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인 ‘쓱 장보기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쓱세븐클럽은 월 구독료 2900원을 내면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결제 금액의 7%를 SSG머니로 적립해주는 멤버십이다. 경쟁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월 4900원, 최대 5% 적립)과 비교해 연회비는 낮추고 적립률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멤버십의 핵심 키워드는 단순성과 강력한 보상이다. SSG닷컴은 “복잡



SSG닷컴이 신규 멤버십으로 선보이는 쓱세븐클럽 모습

/SSG닷컴

한 건 질색’이라는 슬로건과 자체 캐릭터 ‘쓱칠이’를 내세워 혜택의 직관성을 강조했다. 이는 구매 금액별 할인율이 상이하거나 VIP 조건이 까다로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 ‘신세계 유니버스클럽’과 ‘쓱배송클럽’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두 멤

버십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단순함과 보상을 강조했다. SSG닷컴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전라점이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기본 적립 혜택에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을 잡아두는 방식이 낫았기 때문이다.

차별점은 적립 한도에 있다. 네이버는 월 20만원 결제분까지만 5% 적립을 적용하는 반면, 쓱세븐클럽은 월 적립 한도를 5만원으로 넉넉하게 설정했다. 결제액 기준 약 7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타사 대비 고적립 구간이 2배 이상 넓다. 이외에도 신세계백화점몰·신세계몰 전용 7% 및 5% 할인 쿠폰을 매달 2장씩 지급해 쇼핑 혜택을 더했다.

오는 3월부터는 OTT 서비스 ‘티빙(TVING)’ 이용권도 선택 옵션으로 도입된다. 티빙이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과 KBO(한국프로야구) 뉴미디어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야구 시즌 개막과 맞물려 강력한 ‘킬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보기 멤버십 최강자로 안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가장 큰 약점은 ‘무료배송 기준’이다. 쓱세븐클럽의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은 4만원으로 책정됐다. 가격과 상관없이 무료배송을 제공하는 쿠팡 와우 멤버십이나, 무료배송 쿠폰으로 허들을 낮춘 쿠팡 멤버십 등과 대조적이다.

특히 1인 가구나 소량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4만원이라는 기준은 상당한 진입 장벽이다.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채워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어, ‘가벼운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포인트 사용처의 범용성 부족도 아쉬운 대목이다. 온·오프라인 가맹점 어디서나 현금처럼 쓰이는 네이버페이와 달리, 쓱세븐클럽의 SSG머니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그룹 생태계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충성 고객을 묶어두는 데는 유리하지만 신규 고객 유입 유인책으로는 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SG닷컴 이명근 영업본부장은 “새 멤버십은 그로서리 부문 성장과 고객 유입을 가속화하고 협력사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 신뢰도에 차별화된 혜택을 더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독보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SK바이오팜, RPT로 차세대 항암 도전

(방사성의약품)

‘SKL35501’·‘SKL35502’ 임상 승인
“글로벌 임상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

SK바이오팜이 미래 성장 전략인 ‘방사성의약품(RPT)’ 파이프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임상에서 임상 진입으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원료의약품과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RPT 시장 전반에서 리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방사성의약품 신약 후보물질 ‘SKL35501’과 ‘SKL35502’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임상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2024년 7월 홍콩 바이오텍 플라이프 테크놀로지로부터 해당 물질을 도입한 후 한국에서 전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등 SK바이오팜은 1년 반 만에 빠른 속도로 글로벌 임상 단계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SKL35501’ 임상은 국내 기업이 미국 FDA에서 알파핵종 기반 RPT 분야로 승인을 획득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동일한

IND를 제출해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SKL35501은 항암 치료제다. 대장암·전립선암·췌장암 등에서 과발현하는 수용체 단백질 NTSR1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방사성 동위원소인 악티늄-225(225Ac)가 방출하는 고에너지 알파선으로 암세포 DNA를 파괴한다. 알파선은 도달 거리가 짧고 에너지는 높아, 표적 치료 효과는 개선하면서도 주변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은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상은 한국과 미국 내 다기관에서 오픈 라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인간 대상 임상시험으로 기존 표준 치료에 실패했거나 재발하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에서 이뤄진다.

‘SKL35502’는 NTSR1을 표적하는 기전을 활용한 영상진단제다. 하나의 표적·기전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동시에 치료하는 ‘테라노스틱스’ 접근법을 적용했다. 조기 진단 및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정밀 의학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은 이미 후속 물질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위

스콘신대학 기술이전기관(WARF)과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해 ‘WT-7695’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SK바이오팜은 선제적으로 원료의약품 공급망도 구축했다. 미국 테라파워, 벨기에 판 테라, 독일 에커트앤지글러 등 글로벌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기업 3곳과 악티늄-225(225Ac) 공급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SK바이오팜은 오는 2027년까지 RPT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상업화 신약과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잇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인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이번 FDA IND 승인은 SK바이오팜이 RPT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개발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세노바메이트를 중심으로 한 CNS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위에, RPT를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AI 기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이피알, CES서 ‘K뷰티테크’ 알렸다

부스터 프로 등 고기능 제품 선포

에이피알은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기업 부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CES는 매년 미국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로 에이피알은 3년 연속 참가했다. 특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을 비롯해 다양한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파트너를 대상으로 ‘K뷰티테크’를 알렸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올해 에이피알 부스는 지난해 대비 약 33%가량 증가한 1600여 명의 방문자를 맞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CES 혁신상에 ‘뷰티테크’ 부문이 신설되면서 뷰티 산업 내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에이피알이 선보인 뷰티 디바이스와 독자 기술이 집중 관심을 받았



‘CES 2026’에서 에이피알 부스를 찾은 방문객이 메디큐브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를 체험하고 있다.

/에이피알

다. ▲부스터 프로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 ▲진동 클렌저 헤드 ▲부스터 브이 롤러 헤드 등 세안부터 기초 케어, 안티에이징 관리까지 아우르는 고기능성 제품들이 경쟁력을 높였다.

관련 기술 및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고 이와 함께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도 브랜드도 직접 체험 가능해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이청하 기자

야간뇨·야뇨증 증상 치료제 공동 판매

한미약품-한국페링제약

한미약품과 한국페링제약은 지난 7일 야간뇨·야뇨증 증상 치료제 ‘미니린정·미니린멜트설하정(이하 미니린)’ 및 야간뇨 증상 치료제 ‘녹더나설하정(이하 녹더나)’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니린·녹더나의 국내 공급 유통은 한미약품이 전량 담당하며, 영업·마케팅은 한국페링제약이 종합병원을, 한미약품이 병·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영업·마케팅 범위는 침상 수 30개 이상 300개 이하 규모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오른쪽)와 한국페링제약 김민정 대표가 공동 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 중소형 병원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 실제 야간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두 제품의 치료 혜택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아이덴젤트’ 특허 전략 차별화

올해 미국 출시 확정하고 유럽 진출

셀트리온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전략적인 특허 대응을 통해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인 판로 확보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10월 초 아이덴젤트의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달 오리지널사인 리제네론과 특허 합의

를 완료했다. 특허 합의로 올해 말 아이덴젤트 미국 출시를 확정하고, 특허 분쟁에 따른 비용 소모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앞서 2024년 캐나다에서도 특허 합의를 완료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아이덴젤트 허가를 획득하고, 영국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 출시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국가별 다른 특허 소

송 현황 등에 따라 차별화한 전략으로 시장 진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기업법원이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가 오리지널 제형 특허(2027년 6월 만료 예정)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는 오리지널이 사용하는 인산염(Phosphate) 버퍼(완충제)가 아닌 히스티딘(Histidine) 버퍼를 사용하는 등의 제형적 차별성을 갖추고 있어 오리지널의 제형 특허를 회피한 것으로 회사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김여진 표혜미 | 엄승윤 류하륜 김상민 최윤재 | 지강혁 엄정욱 한재우 김도경 | 현지수 한혜란 이정원 김정은 | 임영식 강동철 공민규 김한길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교계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교촌에프앤비, 이주배경 학습자 장학금 전달

국내 대표 상생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지난 8일 서울 회기동에 위치한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이주배경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배움의 기회를 응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라이브스웨트' 9기 출범

동아오츠카는 체형형 러닝 크루 프로그램 '포카리스웨트 라이브스웨트(#LIVESWEAT)' 9기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카리스웨트 라이브스웨트는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직접 경험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동아오츠카



롯데바이오로직스, 인천 연수구와 일자리 협력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연수구와 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우청 롯데바이오로직스 EPC 부문장, 윤영수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을 비롯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신한은행, 기술기업 복미 진출 금융지원 확대

신한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실리콘밸리지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복미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미 관세 협약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



웰컴금융그룹, '가족친화기업' 선정

웰컴금융그룹은 자사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과 웰컴에프앤디가 '가족친화인증기'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기업 인증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웰컴저축은행은 총점 85.3점, 웰컴에프앤디는 총점 79.6점을 얻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웰컴금융그룹이 시행한 다자녀·효도수당 지급 제도가 주효했다. /웰컴금융그룹

넷플릭스 '케데헌', 골든글로브 2관왕... K-애니 새 역사

장편애니·주제가상 동시 석권
한국계 감독 연출작 첫 트로피
조회수 3억 돌파, 역대최고 기록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골든글로브 2관왕에 올랐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비벌리힐트호텔에서 열린 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데헌'은 장편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 가없다'는 작품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무관에 그쳤다.

골든글로브 장편애니메이션 부문에서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 '주토피아2' '리틀 아멜리' '아르코' '엘리오' 등을 제친 케데헌은 한국계 미국인 메기 강 감독과 크리스 애플 헌즈 감독이 공동 연출한 영화로 한국계 감독이 연출한 애니메이션 최초로 골든글로브 시상식 트로피다.



'케데헌'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 작품상 수상.

메 강 감독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케데헌의 주제가 '골든'(Golden)의 가창자이자 작곡가인 이재 등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이 작사·작곡하고 부른 노래가 골든글로브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는 "어렸을 때 K팝 아이들이

되겠다는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좌절해야 했다"며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노래와 음악에 의지했고 지금 여기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꿈이 현실이 됐다"며 한국말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했다.

'케데헌'은 흥행상(Cinematic and Box Office Achievement) 후보로

한국타이어, 복지사각지대 이웃 돕는다

금산군에 성금 1억6000만원 전달
사랑의열매 '희망 나눔캠페인' 동참
저소득·취약계층·복지시설 등 지원

한국타이어가 지난 8일 충남 금산군청에서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서 성금 1억6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한국타이어가 금산군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사회가건강해야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수혜자 중심 나눔을 지속 실천하며 한국엔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의 ESG 경영 철학을



지난 8일 금산군청에서 사랑의 열매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이어가고 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 주만공동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포함해 사랑의 킷 전달, 감장봉사, 지역 축제 후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휴롬, 전현무 모델로 신년건강 공략

‘엔자임 주스’ 루틴 확산

휴롬이 새해를 맞아 전현무를 연간 앰배서더로 발탁하고 신년 건강 캠페인을 적극 펼친다. 12일 휴롬에 따르면 연초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친근한 이미지의 전현무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 가능한 '엔자임 주스' 건강 루틴을 확산하기 위해 앰배서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공개한 본편 광고 영상에서는 전현무가 하루 500g의 채소 과일 권장 섭취량을 자연의 영양을 그대로 담은 엔자임 주스 한잔으로 간편하게 섭취하며 하루 건강량을 채우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와 함께 채소 과일 속 열에 약한 효소와 영양소를 그대로 담아낸 '무가열'편, 자연 영양제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건강 루틴의 '무결점'



휴롬은 방송인 전현무를 연간 앰배서더로 발탁했다.

/휴롬

편, 채소 과일을 통째로 넣어 손쉽게 착즙하고 간편하게 세척하는 '무복잡'편, 재료에 대한 고민 없이 주스키트만 넣으면 완성되는 '무계획'편 등 엔자임 주스를 섭취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휴롬 착즙기를 활용하는 테마별 쇼츠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김승호 기자 bada@

NC AI, '바르코 보이스'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 'ISR 오퍼레이터' 선정

NC AI가 '바르코 보이스'를 활용한 제2회 게임 제작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총 80여 개 팀, 260여 명의 지원자가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바르코 보이스는 텍스트나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캐릭터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음성을 생성해주는 AI 음성 합성 서비스다. 단순히 음성을 출력하는 수준을 넘어 말투와 감정 표현을 반영해 캐릭터의 개성과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바르코 보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각자의 게임 세계관에 최적화된 독창적인 캐릭터 음성을 구현했다.

대상은 팀 '개발바닥'의 'ISR 오퍼레이터'에게 돌아갔다. 해당 작품은

도 지망했으나 이 부문에선 '씨너스: 죄인들'에 밀려 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6월30일 공개된 '케데헌'은 전 세계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며 지난해 최고 인기 영화가 됐다. 넷플릭스에서 공개 후 91일 간 조회수 3억2510만회를 기록해 넷플릭스 영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2위 '레드 노티스'(2억3090만회)와 차이는 조회수 1억회 가까이 났다.

'골든'은 지난해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8주 연속 1위를 하기도 했다. 이 노래는 다음 달 열리는 미국 그라미 시상식에선 본상인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5개 부문 후보 지명됐다. 올해 최다 수상작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였다. 9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이 영화는 작품(뮤지컬·코미디 부문)·감독·각본·여우조연상 등 트로피 4개를 들어올렸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JW이종호재단, '기초과학자 장학생' 선발

최대 3년간 총 2400만원 한도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2025 기초과학자 장학생' 13명을 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초과학자 장학생'은 연구자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주지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JW이종호재단의 공익 지원 사업 중 하나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최초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6회째를 맞았으며 이번 선발 인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69명의 기초과학자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1인당 연간 최대 800만원, 최대 3년간 총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재단은 매년 약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사

◆ 빅데이터뉴스 ▲부사장 겸 편집국장 권대경 ▲산업팀장 조재훈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유통정책과장 문미희

부음

▲변정애씨 별세, 정재준(아리바이오대 표이사)씨 모친상,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14일, 장지 괴산호국원. 02-2227-7500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신탁 운운하는 윤어게인은 ‘보수’가 아니다



기고

이용석

前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대변인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하고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소셜에 직접 생포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임시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작 트럼프의 해당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우리 정권 흔들기에 급급한 채 우리나라를 수동적인 존재로 전제했다.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 나경원·주진우 의원은 이에 보태서 이재명 정부를 마치 독재정권인 듯 연상케하는 메시지를 내며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

마두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안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공당은 물론 야권 유력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정부가 독재정부라는 프레임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절대강자의 부정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한 채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양새다.

공당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니, 그 연장선에서 윤어게인 세력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때문에 개입했다며 이재명도 얼마 안 남았다”고 서로 다독이는 중이다. 그들의 놀이터인 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선 “다음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알고 중국 도망갔다”, “우리도 통치해줘요 트럼프” 등 보수란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극우세력들은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타고 윤석열을 구출하러 온다고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망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극우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이들이 찬양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김구 선생님과 함께 신탁반대에 가장 앞장 선 인물이었다. 각자의 이념은 별개로 하더라도,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독자적 노선 확립을 위해 서라면 다른 이들의 손에 우리나라를 맡겨선 안된다는 대의 속에 한 뜻이 났다.

극우세력들은 이러한 대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사태든 우리 정권 흔들기에

매몰돼 사안과 상관없는 극단적 주장만 펼칠 뿐이다. 다른 나라 극우세력은 애국 및 자국 이기주의 명분 하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K-극우’ 윤어게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우선주의 뿐이다.

“미국에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쿠광을 비판하면 테무·알리 등 중국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쿠광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오히려 ‘안티코리아’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사이 안좋은 이와도 힘을 합쳐야한다”는 노회찬(전 정의당) 의원님 말씀이 안 통하는 시대까지 온 것 같다.

민주주의 세력 안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논해야 하고, 극우 세력과 보수세력을 확실히 구분한 뒤 공론의 장에서 이념을 논의해야 한다.

‘윤어게인’ 극우들에게 이재명 정권이 적폐인 것으로 보인다. 극우 윤어게인 세력은 안티민주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절대로 보수세력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윤어게인과 손절하지 않으면 TK(대구·경북) 군소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향후 국민의힘 당직자 입에서 윤어게인들의 패륜적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발언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대변인

쌍인 힘의 K-뷰티, 기회와 과제



기자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2208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직전 분기 전망치인 74보다 3p 상승한 77로 집계돼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 기준치(100)에 못 미쳤다. 관세 충격으로 급락했던 수출기업의 전망지수가 90으로 16p 상승했지만 내수기업의 전망지수는 74에 그쳤다.

고환율과 고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해 초 체감 경기는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화장품’이 반도체와 함께 업황 호조를 기록했다.

화장품은 ‘언제부터 수출 효과 품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K뷰티는 결코 낯설지 않은 산업이다. 과거 1960년대 경공업 수출을 이끌었고 이후에도 중공업 중심의 성장 전략 뒤편에서 자리를 지켰다. 위기 국면마다 산업의 변두리에서 완충 역할을 한 셈이다.

최근 K뷰티의 발전하는 모습은 또 확연하다.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브랜드 기업은 세계 곳곳으로 입지를 넓혀 ‘K’ 위상을 높이고, 제조개발생산(ODM) 기업은 국산 기술력으로 ‘K’의 가치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가치사슬은 유통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CJ올리브영 등 단일 허브 체제가 사실상 표준이 되고, 방한 외국인을 사로잡으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이어지는 역직구 소비 흐름까지 아우른다.

화장품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가시화되고

있는 수출 성과 이면에는 내수 부진이라는 그림자도 공존한다. 원팀처럼 보이는 생태계는 효율적이지만 일각에선 성공 공식의 획일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소 및 인디 뷰티 브랜드는 특정 플랫폼과 검증된 인기 코드에 의존하게 되고 K를 대표하는 요소들은 점차 비슷한 얼굴을 띤다. 단기 성과에는 유리하지만 다양성과 실험성이 설 자리는 좁아질 수 있다.

화장품은 위기의 수출 국면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잘 팔리는 공식을 내수 생태계로 이식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열풍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K뷰티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혁신과 경험 축적에서 나온다. 수출 성과 뒤에서 내수를 다시 묻지 않는다면, 오늘의 효율은 내일의 제약이 될 수 있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3일 (음 11월 2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앞만 보고 달리니 시야가 좁다. 48년생 기대를 접으니 오히려 편하다. 6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들의 덕은 있는 법이니 비워라. 72년생 부모님의 말씀은 들려주는 이로움이다. 84년생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37년생 기대를 접으니 결과에 감사. 49년생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가져온다. 61년생 동업자에게 믿음을 갖고 출발하자. 73년생 뿌린 대로 걷는다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85년생 서북 방향에서 과거의 귀인이 다시 찾아온다.



38년생 이익만을 염두에 두면 하던 일도 안 된다. 50년생 우물가에서 송충 찾듯이 서두르지 마라. 62년생 버는 일을수록 고개 숙인다. 74년생 부동산 매매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살펴봐라. 86년생 오전 11시부터는 계속 운전 주의를.



39년생 나의 결정을 찾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중요. 51년생 오후에 차량안전에 주의. 63년생 더 노력해야 개선된다. 75년생 주변의 물건을 정리하니 산만한 마음도 정리. 87년생 동창회에서 만난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여 베풀라.



40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보인다. 52년생 신용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64년생 불평보다는 상대방 처지에서 이해해보라. 76년생 이금심도(以琴心操)하듯 취미생활을 해보자. 88년생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인색하지 마라.



41년생 하루의 계획은 이른 아침에. 53년생 대화 시 언제나 겸손하여지자. 65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 공색하다. 77년생 인정은 변하기 쉽고 세상의 도는 엄하다고 했는데. 89년생 뱀뱀한 태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격자식.



42년생 말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니 습득하자. 54년생 근면하고 겸손한 배우자는 인생의 선물. 6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서 내실을 찾자. 78년생 자랑보다는 상대가 배고플 때 베푸는 것이 인정. 90년생 활력이 있지만 건강을 조사해 보자.



43년생 잘못된 만남으로 양다리 되지 마라. 55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하니 승부사이다. 67년생 삼재이니 술자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79년생 아침부터 순조로운 하루로 재물의 이익이. 91년생 가정에서 부화부순(夫和婦順)해야.



44년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나 양보하니 일이 풀린다. 56년생 지나치게 겸손해도 실례가 될 수. 68년생 직장대인관계를 살펴라. 80년생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하니 주변이 꽃동산이다. 92년생 거울은 혼자서는 울지 않으니 이기심을 버려라.



45년생 남을 원망하지 마라 부족한 것은 나의 탓이다. 57년생 외국어 공부로 미래를 대비하라. 69년생 연인을 만나 외외의 지출이 많다. 81년생 종일 사방에서 운이 열린다 다시 힘을 내자. 93년생 독단적인 결정은 손재수를 부른다.



46년생 고집부리다 아군이 적군으로 돌변. 58년생 새로운 아이디어로 회사에 이익을. 70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하지 마라. 82년생 인생길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했으니. 94년생 신용으로 사람에게 신망을 얻는다.



47년생 이루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다. 59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71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지 못한다. 83년생 결혼이 어려운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95년생 삼재이니 나누는 훈훈한 인심을 이어가자.



김상회의四季

시대의 복

전쟁은 권력자와 다국적 사업가들이 일으키고 목숨을 잃는 것은 보통 민중들이다. 한 꺼풀만 더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영웅은 난세의 산물이고 성군이라 칭해짐은 태평성세 때의 인연이다. 아무리 복 있기를 구하여도 시절이 어려우면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의 평안한 일상은 기대할 수 없다.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도 사 년을 지나가고 있다.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과의 분쟁은 또 어떠한가? 천리만리 떨어진 곳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폭탄만 바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뿐 그 여파는 피부에 와 닿는다. 고물가와 똥돈해진 국제관계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 지구촌 곳곳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닌지라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타국의 지도자가 올바른 상식과 공생의식이 없다면 약육강식의 폭풍우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신음한다.

태평양 건너편 나비의 날갯짓 효과가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받고 고통을 받는 현실이다. 불교에서는 팔난(八難)을 언급하고 있는데, 팔난이란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는 여덟 가지 불행한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팔난 속에 폭군을 만나는 것도 한 대목이다. 폭군은 전제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민의식이 확고해진 시대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달며 파시즘적인 지도자들이 난무하는 것이다. 공자(孔子)는 회복해야 할 가치로서 요순(堯舜)시대를 동경했다. 인간의 도리로서 군자의 도가 살아있다고 믿은 삼황오제 시대를 그리워한 것이다. 그 당시 임금 요와 순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의 백성들이 배부르고, 홍수로 손해 입지 않게 물길을 트며 치수로 실생활의 어려움에 진두지휘하며 동고동락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4	9					
						4		
7		2					1	
1		6					8	
	7		4		1			
9				3		5		
4				1		3		
	8							
			5	7	6	4		

8	4							7
			1	6				9
					2			
		7		8				9
	6		5		1		4	
	2			9		8		
			6					
2				1	3			
5							3	1

학과 신설·모집 확대·정책기조에 AI 관련 학과 정시지원자 16% ↑

AI 학과 정시 지원자수 4896명
대학, 신설·통합으로 정원 확대
수도·지방권, 인문계 증가 흐름

대학 AI 관련학과 정시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이 국내외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자연계열 상위권 수험생의 선호가 이어진 데다 대학들의 학과 신설과 통합, 개편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모집 규모 자체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주요 20개 대학 AI 관련학과 정시 지원자수는 4896명으로 전년 4222명 대비 674명 늘어 16.0% 늘었다. 자연계열에서 선발하는 AI 관련학과 지원자수는 전년 대비 17.3% 증가했고 인문계열 선발도 7.7% 늘었다. AI 관련학과 정시 지원자 수는 2024학년도 3069명에서 ▲2025학년도 4222명 ▲2026학년도 489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모집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AI 관련학과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498명에서 ▲2025학년도 545명 ▲2026학년도 648명으로 늘었다. 종로학원은 최근 대학들이 AI 관련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를 AI 관련학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확대한 흐름이 지원자 수 증가와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 11개 대학 지원자수가 3293명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경기·인천권 2개 대학은 353명으로 49.6% 늘었고 지방권 7개 대학도 634명으로 29.7% 증가했다. 전체 규모는 서울권이 가장 크지만 경인권과 지방권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AI 관련학과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 밖으로 확산되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 관련 학과에 입학하고 기뻐하는 수험생 이미지.

는 흐름이다.

서울권 주요 대학의 경쟁률과 지원자 증가도 눈에 띈다. 고려대 인공지능학과는 5.5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36.0% 증가했다. 서강대는 AI기반자유전공학부 28.6대1, 인공지능학과 7.2대 1로 2개 학과 평균 23.5대1을 나타냈고 지원자 수는 21.0% 늘었다. 중앙대 AI학과는 4.6대 1로 지원자수가 14.8% 증가했으며 숭실대 AI 소프트웨어학부는 4.1대 1로 23.3% 증가했다.

서울시립대는 인공지능학과 7.2대 1, 첨단인공지능학부 36.0대 1로 2개 학과 평균 11.3대1을 기록했고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89.6% 증가해 상승폭이 컸다. 세종대는 AI융합전자공학과 26.0대 1을 기록했으며 국방AI융합시스템공학과(해군) 4.6대 1, 국방AI로봇융합공학과 4.2대 1로 3개 학과 평균 4.4대 1을 나타냈다. 세종대 관련 학과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00.0% 증가했다. 숙명여대 인공지능공학부도 7.3대 1로 31.3% 증가했다.

지원자 증가 흐름에는 대학들의 '신

설 효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죽전)가 2026학년도 AI 관련 학과를 신설해 5.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하대도 5.8대 1로 전년 대비 지원자 수가 3% 증가했다.

지방권에서도 지원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원자 수는 경북대가 전년 대비 67.2% 증가했고 ▲부산대 42.3% ▲충남대 64.7% ▲경상국립대 11.8% ▲제주대 31.4% 증가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AI 관련 전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인문계열 선발에서도 증가흐름이 이어졌다.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인문)은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14.1% 증가했고 국민대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인문)도 11% 늘었다. 동국대 컴퓨터AI학부(인문)도 2.1% 증가했다. 반면 한국외대 SOCIAL SCIENCE&AI융합학부는 9.1% 감소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AI 관련학과 지원 증가가 '전면적 상승'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자연)는 10.8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동국대 컴퓨터AI학부도 4.1대 1이었으나 9.5%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정부의 AI 집중 육성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대학들의 모집 확대 추세가 지속되면 대학 간 경쟁 구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향후에는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채용시장 변화가 AI 관련학과 선호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희사이버대, 'AI 시대 속 변화' 조망

송길영 작가 초청 특별강연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지난 10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과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미래사회에서의 인간과 AI 공존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술 변화가 개인의 일과 학습, 사회 구조에 던지는 질문과 대응을 통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는 입시 지원자와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송 작가는 강연에서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으로 규정했다. 그는 "AI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인프라이며, 쓰지 않는다는 선택이 오히려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관련해 송 작가는 조직 형태와 개인 역할이 동시에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조직에서 역할을 분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AI를 활용해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직접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동하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0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에서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 및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경희사이버대학

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치 중심 사회에서 성취 중심 사회로의 이동"이라고 표현하며, 직함이나 직급이 가치의 기준이던 시대에서 "무엇을 만들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췄는지"가 개인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 작가는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는 한 번의 교육으로 평생을 버티기 어렵다"라며 "교육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갱신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움은 더 이상 진입 조건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라며 학습이 직업 이전의 준비 단계가 아니라 직업 수행과 병행되는 과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용인특례시, 동백신봉선·용인선 사업 속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 반영

용인특례시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용인경전철 광고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오는 4월 예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된 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백신봉선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북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거점을 잇는 총연장 14.7km의 노선이

다. 신봉동과 성북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연구개발(R&D) 센터, 호텔·컨벤션 시설이 들어설 구성역 인근 플랫폼시티와 연결된다.

용인선 연장은 용인경전철을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 광고중앙역까지 총 6.8km 연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기존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던 연남지구(옛 경찰대 부지) 개발과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변경 사항을 포함해 장래 교통수요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해당 노선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구직자 평균 어학점수 '토익 700~800점'

평균 스펙, 학점 3점대 중후반
구직자 49% "어학점수 보완 필요"

구직자 평균 스펙이 대졸 중심에 학점 3점대 중후반, TOEIC 700~800점대가 주를 이룬 가운데, 이들은 가장 보완이 필요한 스펙으로 '어학 점수'를 꼽았다. 12일 YBM(회장 민선식) 산하 한국 TOEIC위원회가 YBM 홈페이지 방문자 4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상반기 구직자 스펙'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가 81.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대학원 이상(10.1%) ▲전문대학교(5.9%)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점은 3.5~3.99 구간이 4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4.



/유투이미지

0 이상(24.9%) ▲3.0~3.49 구간(20.8%) 순으로 집계됐다.

TOEIC 성적을 보유한 응답자의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800점대와 700점대가 각각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800~845점 보유자가 14.0%로 가장 많았으며,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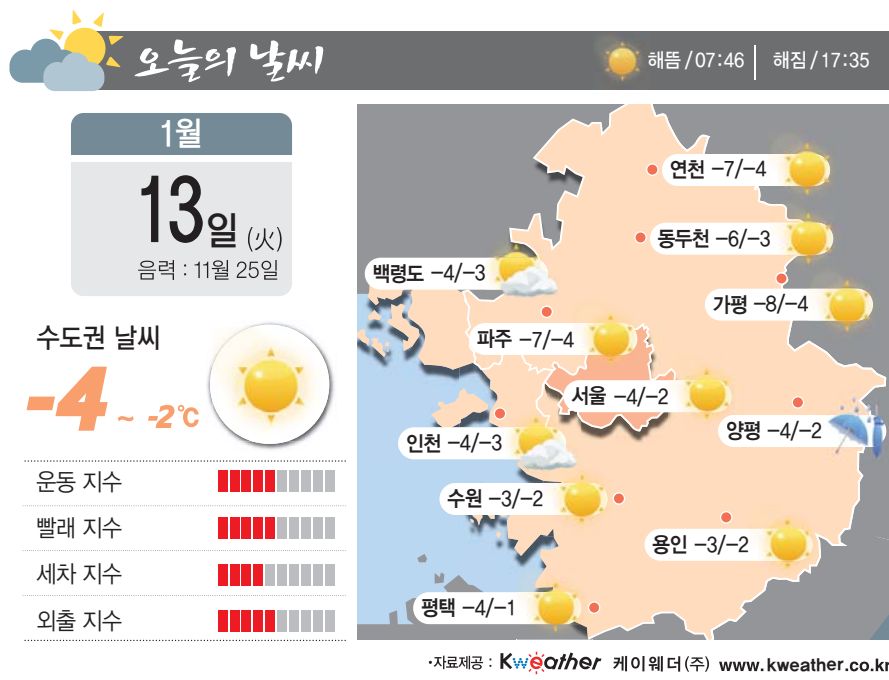
795점(12.9%)이 뒤를 이었다.

TOEIC Speaking 성적 분포의 경우, Intermediate Mid(IM) 등급이 2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Intermediate High(IH) 20.8% ▲Advanced(AL 이상) 7.7%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스펙을 묻는 질문에는 '어학 점수(49.2%)'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인턴·실무 경험(24.9%)이나 면접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17.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국TOEIC위원회는 "구직자들 사이에서 외국어 역량이 취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 이스라엘-독일, 안보 협력 강화 합동 발표문에 서명
▲ 영, 우크라이나 '나이트폴' 미사일 신속 개발 착수
/사진 뉴스시스

▲ 젤렌스키 "러우전쟁 1418일...독소전쟁 기간 넘겨"
▲ 중국, 시진핑 中방문 美청소년에 "우호 협력이 양국 민심"

▲ 마두로 옥중 메시지 "나는 투사"...마두로 아들 "미국은 아버지 못 꺾어"
▲ 미 제재 대상 유조선 11척, 베네수엘라 봉쇄 뚫고 운항



K-베이커리
미국 시장
정조준
L1



Life

SSG닷컴
장보기 시장
1위 탈환 승부수
L2



안전 지키고, 미래 설계하고... 현장 밖으로 퍼진 ‘책임의 전류’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삼성의 경영철학과 핵심가치에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에 핵심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모습이다.

안전 최우선 가치로... 현장 안전문화 조성
응급조치·심폐소생술 교육... 위기상황 대처
소방·지진 안전교육 등 안전체험교육센터 운영
협력사 100개사 교육... 안전수준 향상 노력

◆“안전이 최우선”... 현장 안전문화 정착 박차

삼성전기는 ‘안전환경이 경영의 최우선이다’라는 경영원칙 아래 전사적인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경영진과 관리자·감독자 등 각 계층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 중이다.

삼성전기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성과는 실제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24년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심정지 증상을 보이자, 이를 인지한 동료 직원들이 즉시 사내병원과 방재센터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직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또한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내에 안전체험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삼성전기 임직원들은 소방안전부터 지진안전 실습, 응급처치 등 6가지 테마를 구성해 실제 위험 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받는다.

아울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안전환경상’ 시상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안전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협력사의 안전 수준 향상 제고에도 노력 중이다. 삼성전기는 지난 2016년부터 협력사 안전교육을 시작했으며 참여 기업 수는 43개사에서 지난해 100여개사로 늘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교육으로 협력사 실무자와 경영진의 안전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직원들이 안전기준을 준수해 작은



(오른쪽에서 두번째)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이 경기도 수원市の 매원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 근절 팸플릿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삼성전기

위기도 지나치지 않고 관심있게 살핀다”며 “위기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부터 자립 지원까지...청소년 미래 키운다

삼성전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회사는 ‘푸른코끼리’ 사업의 주관사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으며, 삼성 7개사 관계사와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 예방 전문 NGO),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지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푸른코끼리는 사회적 난제인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전사회적 역량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교육사업이다.

지난 2022년부터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림클래스’ 교육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취약계층 중학생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영어·수학 학습을 비롯해 SW교육과 진로 멘토링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중심 교육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 ‘희망디딤돌’에도 참여한다. 만 18세가 돼 아동양육시설 퇴소 또는 위탁가정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직무 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임직원 참여형 나눔·봉사로 지역사회와 상생

임직원들도 직접 나서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사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국내 사업장에 ‘나눔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나눔 키오스크는 임직원이 사원증을 태그하면 1000원씩 기부되는 시스템으로, 지역사회 NGO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추천받아 500만원이 모금되면 후원 아동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여건 열악한 학생 대상 ‘드림클래스’ 교육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희망 디딤돌’ 참여해

‘나눔 키오스크’ 설치... 10명 중 9명 기부 동참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찾아 재능기부 봉사도

임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키오스크 설치 이후 국내 삼성전기 임직원 10명중 9명에 해당하는 1만명 이상이 기부에 동참해 2024년 기준 총 8억 2000만원의 후원금이 모여 누적 162명의 아동을 후원했다. 후원은 1회성 경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학습 지도, 피아노 레슨, 미술 교육 등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아동들의 미래 성장을 돕고 있으며 어린이날과 명절,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에는 선물 전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선한 영향력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 삼성전기 임직원들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확대하며 지속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위한 비대면 밀بان만 만들기 및 밀키트 제작 지원, 공부방아동의 학습 지원과 신체 발달을 위한 배드민턴 강좌, 보육시설 아동 생일잔치 후원, 혈액수급난 해소 위한 임직원 헌혈 캠페인, DIY봉사활동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삼성전기는 상생추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 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기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삼성전기 임직원들이 나눔 키오스크 태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부활한 ‘황소’ 황희찬...북중미월드컵 앞둔 흥
명보호엔 ‘청신호’
▲‘김민재 결장’ 뮌헨, 볼프스부르크 8-1 대파...
개막 16경기 무패 /사진 뉴시스

▲펜싱 이해인, UAE 에페 월드컵 여자 개인전 동
메달...단체전도 준우승
▲탁구 장우진, WTT 챔피언스 도하 준우승...대
만 린원루에 0-4 완패

▲이성훈, 신한투자증권 G투어 1차 대회 우승...
통산 6승
▲1200년 만에 다시 올린 ‘에밀레종’...성덕대왕
신종, 보존상태 ‘안정적’